

# 人的資本과 製造業 貿易構造變化: 핵서을린 驅逐假說을 중심으로

韓 震 熙

(本院 研究委員)

---

\* 本 論文에 대해 아낌없는 조언과 논평을 하여주신 본원의 유정호, 우천식, 조동철 박사님, 그리고 서울대의 김대일, 고려대의 이종화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특히 유정호 박사님과 김대일 교수님은 각각 1차 가공된 무역통계 및 직종별 임금실태 조사보고서를 제공하여주셨다. 또한 그림 작성을 도와주신 김윤기 연구원 및 편집을 맡아주신 임찬순 연구조원께도 감사드린다. 나머지 오류는 모두 필자의 탓임을 밝힌다.

◇ 要 約 ◇

본고에서는 한 국가가 요소부존도의 독특성을 상실함으로써 교역조건 악화 및 후생손실을 겪을 수 있다는 '핵셔올린 구축가설'을 이론적 토대로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제조업의 구조변화를 분석함으로써 당면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 하였다. 그 결과 그간 중고등교육 노동력의 급속한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부문(전기·전자, 기계 등 일본과 같은 선진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부문)의 비교우위 획득속도가 매우 더디었을 뿐 아니라, 이 부문의 상대가격이 중장기적으로 하락하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이 요소부존도의 독특성 상실에 기인하는 한 이는 핵셔올린 구축가설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비숙련산업(섬유·의류 등)은 중국 및 동남아의 등장 이후 비교우위를 급속히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부문에서 수입물가대비 수출물가가 오히려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은 핵셔올린 구축가설이 의미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종합적으로 반숙련 및 숙련(화학 등)산업에서의 상대가격 및 교역조건(수출물가/수입물가) 하락현상이 두드러져 제조업 전체로는 80년대 후반 이후 교역조건 악화현상이 일어났다고 판단된다.

교역조건 악화현상은 우리가 만든 물건을 값싸게 수출하고 값비싼 물건을 수입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후생의 손실을 의미한다. 동태적으로도 반숙련 및 숙련산업에서의 상대가격 및 교역조건 악화는 중등 및 고등교육인력의 상대임금을 하락시켜 인적자본의 축적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원인이 본고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요소부존도의 독특성 상실에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차별화 및 혁신능력을 보유한 양질의 인력양성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본고가 물적자본이나 기술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지 못한 한 구체적 정책적 함의의 도출에는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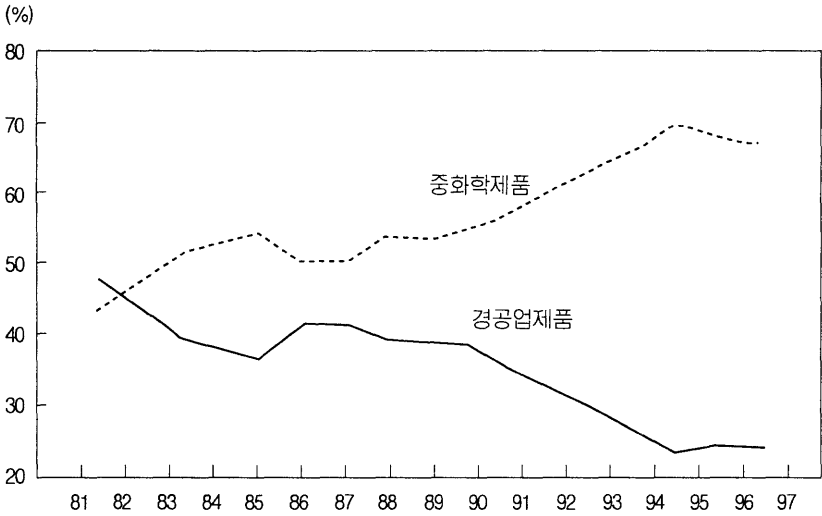
## I. 서 론

지난 20여년간 우리나라의 무역구조는 급격히 변화하였다. 과거 우리 수출의 주종을 이루었던 섬유·의류, 신발 등 경공업부문의 수출비중은 70년대 중반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공업 내에서도 특히 의복, 신발산업 등 단순노동집약적인 품목의 수출은 80년대 말의 3저호황을 고비로 절대액마저 감소하고 있다. 반면 통상적으로 중화학부문으로 분류되는 전기·전자, 기계 및 화학 등의 수출비중은 꾸준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수출비중이 경공업부문에서 중화학공업부문으로 이행하는 속도도 매우 빨라, 경공업제품 수출이 전체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1년의 약 50%에서 97년에는 약 25% 내외로 감소하였다(그림 1). 이러한 수출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우리나라의 과거 경이적인 고도성장의 주요 특징 중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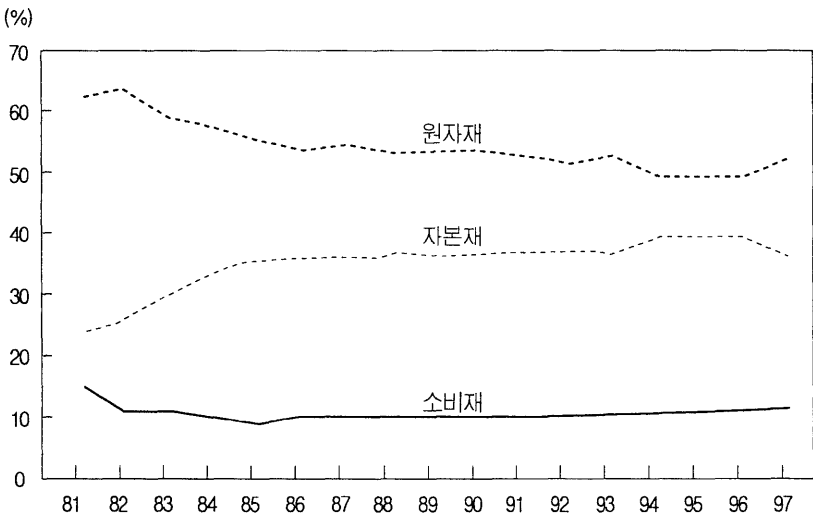
수출구조가 위와 같이 급속히 바뀌어온 것과는 대조적으로 수입구조는 상대적으로 그리 많이 변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수입을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로 나누어 각각의 비중을 나타낸 것이 [그림 2]인데, 대체적으로 중화학부문에 속하는 원자재 및 자본재 수입은 전기간중 총수입의 약 85~90% 정도를 차지하여 70년대의 중화학공업정책 혹은 그 이후의 자본재산업육성정책 등 수입대체적 성격을 띠는 정부의 각종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나라 수입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수출구조가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급속히 변화한 것에 비하여 수입구조가 원자재 및 자본재 중심으로 지속

[그림 1] 경공업·중화학의 수출비중



[그림 2] 품목별 수입비중 추이



되어왔다는 것이 우리나라 무역구조 변화의 큰 특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가 수출 및 투자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를 유지하여왔다는 사실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원자재 및 자본재에 대한 수입의존적인 산업구조로 인하여 이 부문의 무역수지는 최근까지도<sup>1)</sup>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경제 전체적으로도 수출이 잘되어도 수입이 함께 증가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그동안 수입의존적 산업구조 개선을 위한 자본재산업 경쟁력 강화 내지는 육성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강조되어왔다.

자본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경쟁력 확보 내지는 수입대체의 필요성은 중국 및 동남아국가가 국제시장에서 주요 수출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여건 변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우려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80년대 이후 중국 및 동남아국가들은 국제적으로 보다 활발해진 직접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우리의 전통적 수출부문이던 섬유·의류와 같은 노동집약적 부문뿐 아니라 가전제품 등 일부 자본집약적인 부문에서 국제시장에서의 비교우위를 가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도 의복, 신발과 같은 단순노동집약적인 부문에서 전기·전자, 기계, 화학과 같은 보다 기술 혹은 人的資源集約的인 부문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그러나 전기·전자, 기계, 화학과 같은 부문은 일본, 독일을 포함한 선진국들의 전통적 수출산업으로서 기술이나 인력 측면에서 선진국에 비해 뛰어나지 못한 우리나라는 당장 이 부문에서 뚜렷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힘들다. 따라서 이 부문에서는 핵심 고가품 위주로 수

1) 이 글의 초안은 외환·금융위기 이전에 쓰여진 것으로서 여기서 최근이라 함은 대략 97년경을 의미한다.

입의존적 무역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노동 집약적인 산업에서는 중국 및 동남아와의 가격경쟁에 직면하고 기술 혹은 인적자원집약적인 산업에서는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과 경쟁하여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있다.

본고의 목적은 이와 같은 우려의 타당성 여부를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다음과 같은 ‘헤셔올린 구축가설(Heckscher-Ohlin Crowding Hypothesis)’<sup>2)</sup>을 이론적인 틀로 제시한다. 헤셔올린 구축가설은 한 나라의 상대적 요소부존도가 그 나라의 요소부존도의 독특성(distinctiveness)을 잃게 하는 방향으로 변함으로써 그 나라는 교역조건의 악화 및 이에 따른 후생손실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Leamer and Lundborg(1995)은 헤셔올린 구축가설을 스웨덴 경기침체 장기화의 원인에 대한 한 설명으로서 제시하기도 하였다. 즉, 전후 신흥 아시아국가들과 유럽국가들이 스웨덴의 전통적 수출시장을 구축(crowd)함으로써 스웨덴은 교역조건의 악화 및 후생의 손실을 겪었다는 것이다.

이 가설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최근 무역여건의 변화에 대한 항간의 주장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1) 요소부존도의 독특성 상실 : 급속한 인적자본의 축적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단순노동력이 풍부한 국가에서 인적자본이 풍부한 국가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음. 그러나 한편으로는 단순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중국 및 동남아국가들이 세계시장에 진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상대적 인적자본부존도가 선진국에 비하여 두드러지지 못함. 따라

2) ‘헤셔올린 구축가설’의 자세한 이론적인 설명은 Leamer and Lundborg (1995)를 참조.

서 우리나라는 풍부한 단순노동력으로 특징지어졌던 과거의 독특한 상대적 요소부존의 입지를 상실하고 있음.

- (2) 중국·동남아 및 선진국 양쪽과 경쟁심화로 인한 제조업 교역조건 하락 : 단순노동집약적 부문에서는 중국 및 동남아와의 경쟁이 심화되고, 인적자본집약적 부문은 선진국의 전통적 수출산업으로서 이미 경쟁이 치열함. 이에 따라 제조업의 교역조건이 하락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최근 무역환경 변화에 대한 항간의 우려와 스웨덴의 경험과의 공통점에 주목하고, 과연 이 가설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타당성을 갖는가 하는 점을 살펴본다.<sup>3)</sup>

본고의 또 하나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비교우위가 어떤 부문에 존재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여왔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비교우위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는 것은 핵셔올린 구축가설의 타당성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부수적으로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를 위하여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제조업을 인적자본집약도에 따라서 비숙련, 반숙련, 숙련 등 3가지 산업으로 분류하여 생산 및 수출입 패턴의 변화를

3) 부즈·알렌 해밀턴(1997)은 한국이 최근 '경제적 너트랙커(The Economic Nutcracker)'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과 같은 저비용 국가와 경쟁을 해야 하는 동시에 경영능력, 시장의 이해, 기술부문에서 우위에 있는 일본과 같은 국가와 경쟁을 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 한국의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산업부문은 이제 다른 아시아국가들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다. 섬유, 철강, 석유화학제품,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자동차가 이 부문에 속한다. 중국을 위시한 아시아의 신흥공업국은 노동비용면에서 한국보다 월등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이것이 한국이 처한 너트랙커의 한 측면이다. ... 또한 한국이 첨단기술산업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기업들과 기술부문에서 경쟁해야 한다. 한국이 일본이 집중육성한 산업분야를 그대로 따라 육성했기 때문에 현재 한국이 겪고 있는 너트랙커의 한편에 일본기업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이러한 시각이 핵셔올린 구축가설과 차이점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유사한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고 판단된다.

살펴본다.

필자가 우리나라의 비교우위의 변화를 인적자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또다른 이유는 대략 다음과 같다. 흔히 우리나라를 ‘고급인력이 풍부한 나라’로 묘사하거나 자동차, 화학 등 중화학제품이 주요 수출품목이라는 이유를 들어 마치 우리나라가 고급인력 집약적인 산업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 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과연 진정 그러한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그 실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II장에서는 다양한 인적자본에 관한 지표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높은 교육열을 바탕으로 인적자본의 급속한 축적을 이루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 대부분은 고등교육(대졸이상)이 아닌 중등교육(중고등학교에 해당) 인력의 급속한 팽창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지적한다. 그 다음 III장에서는 이와 같은 중등교육인력의 급속한 증가에 상응하는 비교우위의 변화가 이루어졌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본다. 여기에서 필자는 우리나라에서 중등교육인력의 급속한 증가에 상응하는 비교우위의 변화(즉, 본고의 분류에 의할 때 반숙련산업에 대한 비교우위의 획득)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며, 이를 뒷받침하는 징후를 인적자본집약도에 의해 분류된 산업별 순수출의 변화, 생산비중 및 무역의존도(수출/생산, 수입/내수)의 변화, 교역조건 및 산업별 수출입 물가지수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하여 보여주게 된다.<sup>4)</sup>

만일 중등교육인력의 급속한 축적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비교우위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사실로 받아들

4) 물론 본고가 기술적(descriptive)인 접근방법을 취하는 한 과연 요소축적에 상응하는 비교우위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단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된다.



일 수 있다면 이는 하나의 퍼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인적자본 구성상의 변화가 요소부존도의 독특성을 상실하는 방향으로의 변화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이를 증명하기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며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 대신 본고에서는 요소부존도의 독특성 상실을 전제로 할 때<sup>5)</sup> 요소축적속도에 비한 비교우위의 상대적으로 더딘 변화속도는 헉셔올린 구축가설과 일맥상통하는 현상이라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반숙련노동력이 급속히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반숙련노동집약적 산업 가운데 우리나라의 수출품의 상대가격이 세계시장에서의 풍부한 공급능력으로 인해 하락하고 있다면 이러한 상대가격 구조의 변화는 이 부문으로의 비교우위의 획득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 점은 본고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 중 하나이다. 뒤의 III장 4절에서 살펴보겠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의 반숙련부문 수출품의 세계시장 상대가격은 특히 80년대 중반 이후 하락추세에 있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반숙련노동력의 급속한 증대에도 불구하고 이 부문으로의 비교우위 획득속도가 더디다는 점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와 관련된 기존문헌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무역구조의 결정요인 혹은 비교우위의 분석에 관한 연구

5) 과거 우리나라의 경공업부문 수출을 중심으로 한 고도성장기에는 중국 및 동남아국가가 본격적으로 경공업부문의 주요 수출국으로 부상하기 이전이어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비숙련노동 풍부국으로서의 독특성을 지니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인적자본 구성이 반숙련노동력 위주로 전환되어가는 시기에 이미 세계적으로 반숙련 노동력이 풍부하였거나 혹은 풍부하여졌다면 우리나라의 급속한 반숙련노동력의 축적에도 불구하고 요소부존도의 독특성을 상실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 기능 중에서 문제가 있는 기능은 줄이되 필요한 기능은 강화하여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는 Hong(1987, 1989), Ramazani and Maskus(1993) 등 다수 존재한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노동과 자본 등 2요소만을 고려하였거나 2요소 이상을 고려하였다 하더라도 인적자본이라는 생산요소는 분석대상에 포함하지 못하였다. 인적자본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비교우위를 분석한 연구로는 유정호(1991), 김동석(1997) 등이 있다. 유정호는 우리나라 산업별 수출의 OECD 시장점유율을 피설명변수로 하고 물적자본집약도 및 산업별 임금자료를 통해 추정된 인적자본집약도를 설명변수로 한 회귀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비교우위의 결정요인 및 변화를 설명하였다. 그는 인적자본집약도의 계수가 음수로서 절대값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소한다는 점을 들어 우리나라가 아직 인적자본집약적 재화의 생산에 비교우위는 없으나 점차 획득해가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김동석은 환경규제가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회귀분석 및 산업별 수출입의 요소함유량(factor content)을 계산하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1993년 한 시점에서의 우리나라 비교우위를 살펴보았다. 여기서도 1993년에 우리나라는 인적자본집약적 재화의 생산에 비교우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가 기존의 문헌과 다른 점은 대략 다음의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첫째, 본고는 우리나라 무역의 비교우위 결정요인 및 변화추이를 분석하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핵셔올린 구축가설’이라는 이론적인 틀하에서 상대적 요소부존도의 변화, 무역구조의 변화, 생산물 상대가격의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연관지어 살펴봄으로써 무역구조의 변화에 나타난 우리나라 제조업의 문제점에 대한 파악을 시도하였다. 둘째로, 본고는 인적자본을 고려하여 무역구조의 결정요인 및 변화추이를 살펴봄에 있어 인적자본을 비숙련, 반숙련, 숙련 등 세가지로 세분하여 분석을 시도

하였다. 본고에서 인적자본을 세분한 이유는, 앞서 지적하였듯이, 과거 우리나라의 인적자본축적의 주된 특징이 중등교육인구의 증가였고, 따라서 단순히 노동과 인적자본이라는 두 요소만을 사용한 분석으로는 우리나라 비교우위 변화의 특징적인 면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가 반숙련노동집약적인 부분에서 비교우위를 획득하고는 있으나 그 속도는 급속한 반숙련노동인구의 증가에 비해 매우 느리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현상이 관찰된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의 과거 상대적 요소부존도의 변화가 요소부존도의 독특성을 상실하는 방향으로의 변화였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하는 것이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다음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상대적 요소부존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제Ⅲ장에서는 ‘비교우위 구축가설’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나라 제조업의 무역 및 산업구조의 변화를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Ⅲ.1에서는 인적자본집약도에 따른 본고의 산업분류방법을 간단히 소개하고, Ⅲ.2 및 Ⅲ.3에서는 수출입 및 순수출, 생산비중, 무역의존도의 변화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제조업의 비교우위 변화를 살펴본다. 그리고 Ⅲ.4에서는 ‘비교우위 구축가설’의 핵심적인 측면인 교역조건을 살펴본다. Ⅲ.5에서는 산업내 무역의 산업별·시간별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본고에서 취한 핵심어린 이론의 한계점을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Ⅳ장에서는 본고를 요약하고 결론을 맺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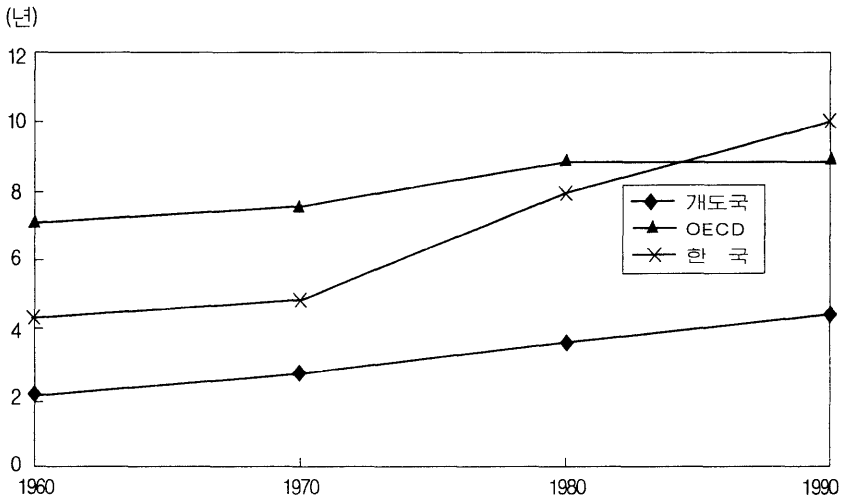
## II. 상대적 요소부존도의 변화

### 1. 인적자본의 축적

인적자본을 추정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노동경제학 문헌에서는 교육, 경력, 나이, 성별 등 노동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노동력의 특성들을 사용하여 인적자본이라는 변수를 추정하여왔다. 이 방대한 문헌을 여기서 소개하는 것은 생략하기로 하고, 본고에서는 교육과 관련된 지표만 사용하여 우리나라의 상대적 인적자본의 변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간의 많은 연구들이 교육의 혜택이 노동자에 체화되어 노동자의 생산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3]은 Barro and Lee(1996)의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와 OECD 및 개도국의 15세이상 인구의 평균교육연수의 변화추이를 10년 단위로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1960~90년 기간중 우리나라 15세이상 인구의 평균교육연수의 증가가 OECD나 개도국에 비하여 매우 빨랐다는 점이다. 1960년 시점에 우리나라의 15세이상 인구의 평균교육연수는 약 4년 정도로 개도국 평균(약 2년)보다는 높았지만 OECD 평균(약 7년)에는 훨씬 못 미치는 정도였다. 1970년 이후 1990년까지 우리나라의 평균교육연수는 급속히 증가하여 1990년에는 약 10년 정도로 1960년의 약 4년에 비하여 2.5배 정도로 되었고, 이는 OECD 평균(약 9년)을 상회하는 수치이다. 개도국의 경우에도 평균교육연

[그림 3] 우리나라 평균교육연수의 변화(1960~90)



수는 1990년에 약 4.5년으로 1960년의 약 2.5배로 되었다. 그러나 평균교육연수라는 지표가 무한히 증가할 수 없는 속성을 지닌 지표이고, 또한 우리나라가 개도국에 비해 1960년 시점에서 높은 수준에서 출발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볼 때,<sup>6)</sup> 우리나라의 이러한 교육연수의 증가율은 OECD뿐 아니라 개도국에 비해서도 놀라운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다.

평균교육연수뿐 아니라 다른 지표를 통해서도 우리나라의 인적자본 축적이 빨랐다는 사실은 뒷받침된다. Collins and Bosworth(1996)는 Denison(1967)의 방법을 따라 각기 다른 학력을 가진 노동자들의 노동력 질의 지수를 가중치로 사용하여 각 학력구간의 노동자수를 합산하는 방법을 통하여 경제 전체 노동력 질의 지수를 구한다. 각 학력구간의 노동력 질의 지수를 구하는 데 있어 Collins and Bosworth(1996)는 Psacharopoulos(1994)

6) Collins and Bosworth는 평균교육연수라는 변수가 무교육자에게 '零(0)'이라는 가중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초기의 평균교육연수가 낮은 국가들의 노동력 질적 증가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에 보고된 지역별 교육의 평균수익률을 참고로 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동아시아에서 1년의 교육에 대한 지역평균 수익률은 약 10.7%로 전세계평균 수익률인 10.2%를 약간 상회한다.

이에 따라 Collins and Bosworth는 작계는 7%, 크게는 12%의 수익률을 가정하여 학력별 노동력의 질의 지수를 계산하였다.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지역별, 국가별 노동력 질의 증가율을 비교하여보면, 교육의 수익률을 7%로 가정한 경우나 12%로 가정한 경우 모두 동아시아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가장 빠른 노동력 질의 증가가 이루어졌으며, 동아시아지역 내에서도 한국의 증가율이 가장 빨랐다. 즉, 7%의 수익률의 경우 1960~94년 기간중 한국의 노동력 질의 증가율 추정치는 1.2%로 동아시아지역(0.9%)뿐 아니라 중국(0.6%), 남미(0.5%), 선진국(0.5%)의 노동

〈표 1〉 노동력 질 증가율의 국제비교(1960~94)

(단위: %)

지역 및 국가	노동력 질의 증가율	
	7% 수익률	12% 수익률
중 국	0.6	1.3
동 아 시 아	0.9	1.5
인 도 네 시 아	0.8	1.4
한 국	1.2	2.0
말 레 이 시 아	0.8	1.4
필 리 핀	0.8	1.3
싱 가 포 르	0.6	1.0
태 국	0.7	1.1
대 만	1.0	1.6
남 아 시 아	0.5	1.0
아 프 리 카	0.3	0.6
중 동	0.7	1.4
남 미	0.5	1.0
선 진 국	0.5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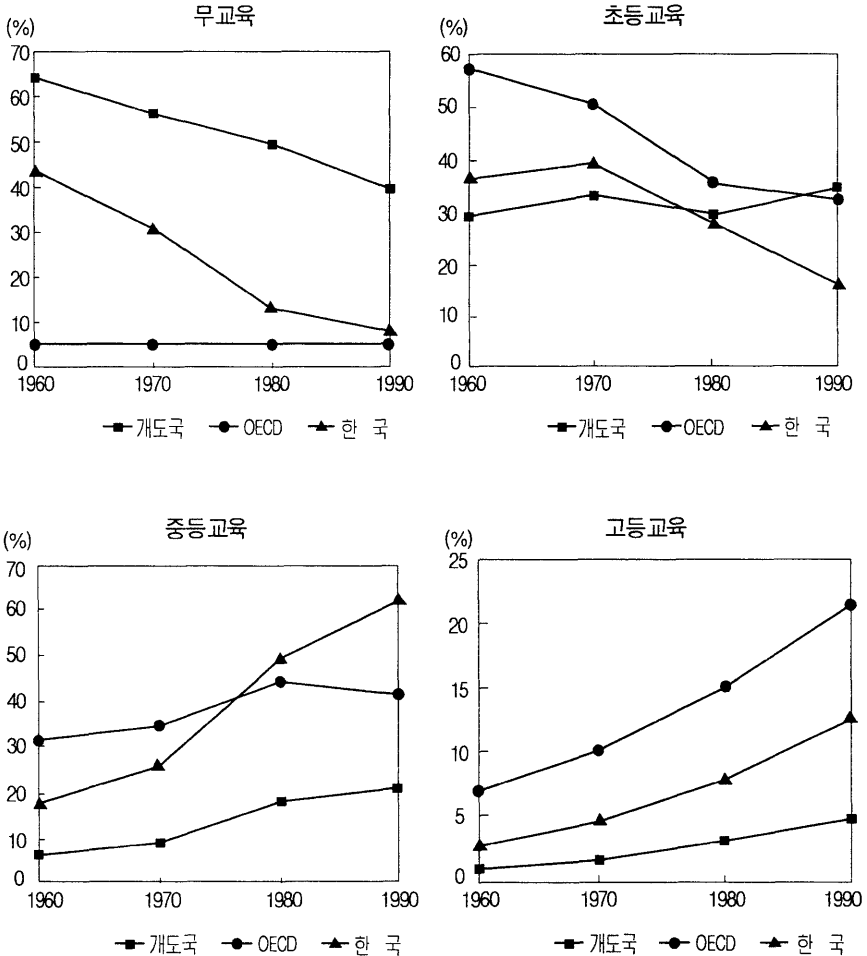
주 : Collins and Bosworth(1996)의 Table 2를 수정인용한 것임.

력 질의 증가율 추정치에 비해 훨씬 컸으며, 12% 수익률을 가정할 경우 이 차이는 더욱 두드러졌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의 인적자본 증가율은 평균교육연수나 노동력 질의 추정치를 통하여볼 때 다른 국가나 지역에 비하여 무척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이 지표들은 전체적으로 인적자본이 얼마나 빨리 증가하였는지를 살펴보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인적자본 증가의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과연 이러한 높은 인적자본의 증가가 고급인력 혹은 중급인력의 증가에 의해 주로 이루어졌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본고에서는 노동력의 학력별 구성비의 변화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4]는 역시 Barro and Lee(1996)의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15세이상 인구 중 각 학력별 인구구성비의 변화추이를 OECD 및 개도국과 비교한 것이다. 먼저 우리나라의 무교육자의 비율은 1960년의 약 44%에서 급속하게 감소하여 1990년에는 10% 미만으로 줄어들어 OECD 수준에 빠르게 접근해왔음을 알 수 있다. 15세이상의 인구 중 초등학교 중퇴 및 초등학교 소지자의 비율은 1960~70년 기간에는 약간 증가하나 그 이후는 급격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초등교육자의 비율이 70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는 이유는 중등 및 고등교육인구의 비율이 70년 이후 빠르게 증가한 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겠다. 중등교육인구의 비율은 전기간에 걸쳐 특히 빠르게 증가하였는데, 1960년 시점에서는 총인구의 약 17% 정도가 중등교육을 조금이라도 받았거나 중등학교 소지자였던 반면, 1980년에는 그 비율이 약 50%로 OECD보다 높아지고 1990년에는 60%를 상회한다. 마지막으로 고등교육자의 비율은 역시 중등교육자의 비율과 마찬가지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그 증가세가 중등교육자에

[그림 4] 15세이상 인구의 학력별 구성비의 국제 비교



비하여 그리 두드러지지 않는다.<sup>7)</sup> 이러한 사실들을 놓고 볼 때 1960년 이후 우리나라의 피교육인구의 확대는 주로 중등교육자

7) 하지만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대상자의 고등교육기관 등록률이 1992년에 약 42%로 대부분의 유럽국가보다 높은 수준임을 감안할 때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고등교육자의 비율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리라고 예상된다 (Snodgrass [1996], p.19). 우리나라의 교육문제에 관한 최근 연구로는 Woo and Lee(1998)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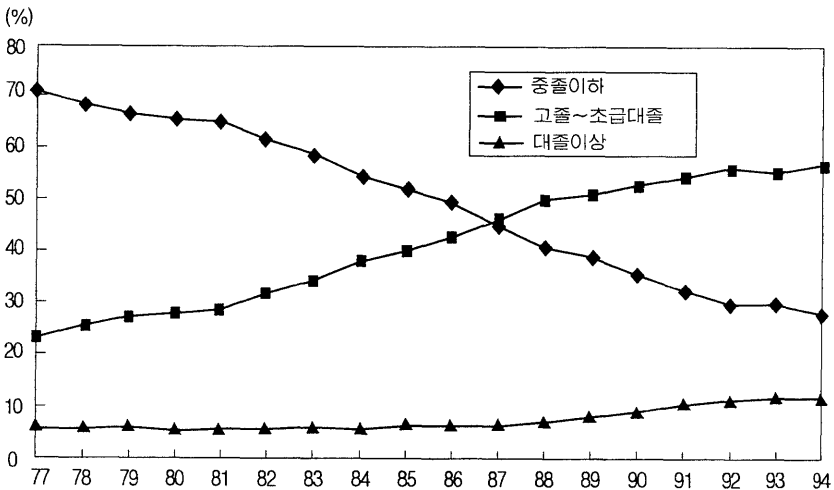


의 확대에 의하여 주도되어왔으며 1970년 이후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제조업 학력별 고용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다라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등교육자 비중의 확대가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난다. [그림 5]는 1977~94년 기간중 우리나라 제조업 피고용자의 학력별 구성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중졸이하의 비중은 1977년 이후 1994년까지 지속적으로 빠르게 감소하여왔는데 반해 고졸이상 초급대졸이하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빠르게 증가하여왔다. 반면 상대적으로 고급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대졸이상의 비중은 1977년 이후 1987년 정도까지는 거의 변동이 없다가 1988년 이후부터 완만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학력별 고용비중뿐 아니라 학력별 고용증가율 및 평균교육연수의 변화 등이 <표 2>에 나타나 있다.

요약하면 평균교육연수 및 교육의 수익률에 반영된 노동력의 질의 추정치 등을 통하여본 우리나라의 인적자본증가율은 지난

[그림 5] 제조업 학력별 고용구조의 추이(1977~94)



〈표 2〉 학력별 고용구조의 변화(제조업, 1977~94)

	1977~80	1981~85	1986~90	1990~94
고용증가율(%)				
제조업	2.7	3.0	5.5	3.0
국졸~중졸	0.1	-1.4	-2.1	-8.6
고졸~초급대졸	9.4	10.1	11.3	-1.0
대졸이상	3.5	6.4	13.6	3.5
고용비중(%)				
제조업	100.0	100.0	100.0	100.0
국졸~중졸	69.3	61.9	46.1	32.2
고졸~초급대졸	25.4	32.4	46.8	56.4
대졸이상	5.3	5.7	7.1	11.4
평균학력(년)	9.3	9.8	10.6	11.3

주 : 노동부, 『직종별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각년도에서 계산.

수십년간 전세계에서 가장 빨랐으며, 이러한 빠른 인적자본증가는 우리나라의 비교우위를 인적자본이 집약적인 재화로 바꾸어나갔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학력별 인구구조 및 제조업 고용구조 등을 통하여볼 때, 이와 같은 인적자본의 증가는 주로 중등교육자 비중의 확대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소위 고급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초급대졸이상 혹은 대졸이상의 비중은 80년대 후반에서야 비로소 완만히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적어도 지난 20~30여년간은 고급인력의 증가가 우리나라 인적자본증가의 주된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 2. 물적자본의 축적

비록 본고에서 고려하지는 않지만 물적자본이라는 요소부존도의 변화에 관해서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나라 자본스톡의

상대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전세계 자본스톡의 증가율 대비 우리나라 자본스톡의 증가율을 비교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자본스톡 증가율의 국제비교가 초기자본스톡의 추정방법 및 감가상각률 등에 민감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반면 추정의 편의상 투자율(GDP 대비)을 자본스톡 변화의 대리변수로 삼아 자본스톡의 증가율을 유추하는 방법도 널리 사용되어왔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한국 및 동아시아국가들의 자본스톡의 상대적 변화를 살펴본 Collins and Bosworth(1996)의 <Table 2>를 인용하여보기로 한다.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국가들의 자본스톡증가율은 1960~94년 기간중 연평균 9.9%로서 선진국(4.5%), 남미(5.4%), 중동(7.1%)의 자본스톡증가율보다 훨씬 높다. 동아시아국가들 중에도 한국의 자본스톡증가율은 12.6%로서 싱가포르(13.1%)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다. 우리나라의 투자율은 자본스톡증가율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에 비해 다른 국가보다 놀라울 정도로 높은 편은 아니다. 먼저 국별가격을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의 GDP대비 투자율은 1960~94년 기간중 23.5%로 동아시아 국가인 싱가포르(33.2%), 말레이시아(25.6%), 태국(25.6%)보다는 낮으나, 선진국(20.8%) 및 여타 개도국 지역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다. 하지만 국제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의 투자율(23.7%)은 싱가포르(31.2%)를 제외한 동아시아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높지만 선진국(24.5%)에 비해서는 약간 낮다. 국제가격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투자율이 선진국보다 약간 낮다고 하더라도 만일 우리나라의 초기 자본스톡이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낮았다면, 자본스톡증가율은 선진국에 비하여 클 수도 있을 것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자본이 상대적으로 희소한 국가라는 위치를 점차적으로 탈피하여왔다고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표 3〉 자본스톡증가율 및 투자율의 국제비교(1960~94)

(단위: %)

지역 및 국가	자본스톡증가율	GDP대비 투자율	
		국별가격기준	국제가격기준
중 국	6.7	22.3	20.5
동 아 시 아	9.9	21.1	18.6
인도네시아	8.3	18.1	17.1
한 국	12.6	23.5	23.7
말레이시아	10.0	25.6	23.5
필 리 핀	6.0	19.8	15.3
싱 가 포 르	13.1	33.2	31.2
태 국	10.6	25.6	18.1
대 만	12.2	20.0	21.9
남 아 시 아	5.2	18.9	11.3
아 프 리 카	4.8	19.0	9.5
중 동	7.1	19.0	12.6
남 미	5.4	21.4	16.9
선 진 국	4.5	20.8	24.5

주 : Collins and Bosworth(1996)의 Table 2에서 인용한 것임.

### Ⅲ. 제조업 비교우위의 변화 및 문제점

#### 1. 산업분류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제조업 내의 각 산업을 그 산업의 인적 자본집약도를 기준으로 하여 '비숙련', '반숙련', '숙련' 등 3가지 산업으로 분류하였다. 인적자본집약도의 지표로는 『직종별 임금실태 조사보고서』를 이용하여 구한 1977~94년 기간 평균 각 산업의 대졸이상 고용비중을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이 지표가 0~10%의 구간 내에 있는 산업을 비숙련으로, 10~17% 구간

내에 있는 산업을 반숙련으로, 17% 이상의 산업을 숙련으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이 산업을 분류하는 것이 다소 자의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분석의 편의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작업이다. 그 결과 섬유·의류, 목제품, 조립금속 등은 비숙련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음식료, 전기·전자, 1차금속, 수송용기계를 포함한 기계산업은 반숙련노동집약적 산업으로, 화학 및 석유정제업, 기타 석유 및 석탄제품산업은 숙련노동집약적 산업으로 분류되었다. 인적자본집약도의 지표로 평균교육연수도 사용하여보았으나, 평균교육연수의 산업별 차이가 크지 않고 또한 평균교육연수라는 지표가 고졸자비중이 높아서 높은 경우와 대졸자비중이 높아서 높은 경우를 구분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어 본고에서는 대졸 이상 고용비중이라는 지표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에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은 산업분류의 유용성은 추후 점검하여 판단할 문제이지만, 한 가지 특이할 만한 점은 본고에서 사용한 방법에 의한 산업분류가 Leamer(1984)의 산업분류와 거의 일치한다는 점이다.<sup>8)</sup> Leamer는 무역패턴의 상관관계가 높은 품목을 한 산업으로 묶는 방식을 통하여 제조업을 ‘노동집약적(LAB)’, ‘자본집약적(CAP)’, ‘기계(MACH)’, ‘화학(CHEM)’으로 분류한 후, 어떤 국가가 발전함에 따라 이 순서대로 그 산업의 순수출국이 되는 경향이 있음을 밝힌 후, 이를 ‘발전의 사다리(ladder of development)’라고 명명하기도 하였다. 본고의 분류를 Leamer의 분류와 대조하여보면 Leamer의 CAP과 MACH가 본고의 반숙련으로 묶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세부적인 산업에서 큰 차이가 없음을 발견할 수 있다. Leamer and Lundborg(1995)는 이러한

8) Leamer의 분류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원전을 참고하기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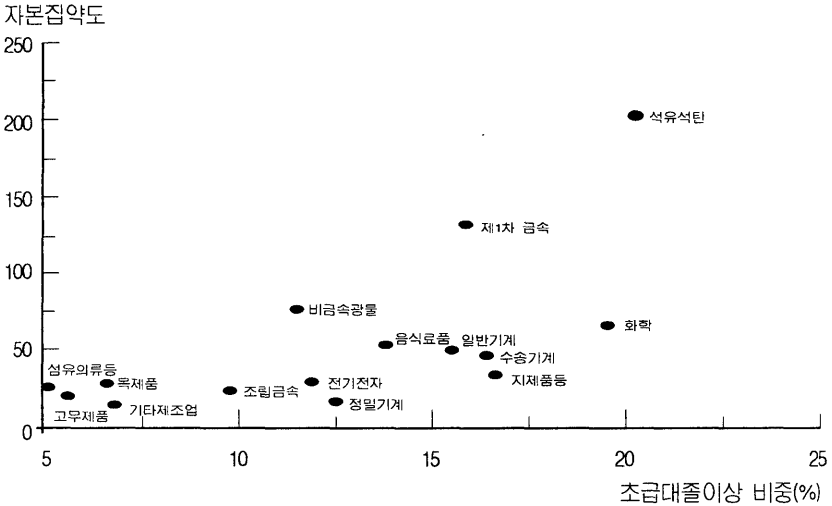
〈표 4〉 인적자본집약도에 따른 제조업 분류

인적자본 집약도	15개 소분류	KSIC 제차개칭	산 업 명	대졸이상 고용비중	평 균 교육연수
비숙련 (LAB)	2	32	섬유·의류·가죽·신발	5.0	9.5
	7	355	고무제품	5.6	9.8
	3	33	목제품·가구	6.6	9.8
	15	39	기타 제조업	6.8	9.7
	10	381	조립금속	9.7	10.1
반숙련 (ELEC& MACH)	8	36	비금속 광물제품	11.5	10.1
	12	383	전기·전자제품	11.9	11.1
	14	385	정밀기계	12.5	10.9
	1	31	음식료·담배	13.8	10.6
	11	382	일반기계	15.5	11.1
	9	37	제1차 금속	15.9	11.1
	13	384	수송용 기계	16.5	11.2
	4	34	지제품·인쇄·출판	16.6	11.0
숙련 (CHEM)	5	351	산업용 화합물	19.5	11.4
		352	기타 화학제품		
		356	기차 플라스틱		
	6	353	석유정제업	21.0	11.0
	354	기타 석유 및 석탄제품			

주: 노동부, 『직종별 임금실태 조사보고서』를 이용하여 계산한 것임.

4가지 산업의 순서가 대략 물적자본집약도의 순서와 일치하며, 단지 화학산업이 기계산업보다 인적자본집약도가 크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러한 사실이 관찰되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물적자본집약도를 1976~94년 기간 평균 1인당 자본스톡으로 측정한 후, 각 산업의 인적 및 물적자본집약도를 2차원 평면에 나타낸 것이 [그림 6]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제조업 각 산업의 특성이 Leamer가 지적한 점과 대략 일치함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 물적자본집약도를 사용하여 산업을 좀더 세분화하지 않은 이유는 본고의 주된 관심이 인적자본의 변화에 따른 무역구조의 변화에 있을 뿐 아니라 기술적인 방법론에 의

[그림 6] 산업별 인적 및 물적자본집약도



거하여 비교우위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향후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을 동시에 고려하여 분석하는 것도 흥미 있다고 판단된다.

## 2. 무역구조로 본 비교우위의 변화

### 제조업 전체

인적자본집약도에 따라 분류된 산업의 무역구조를 살펴보기 전에 제조업 전체 무역구조의 추이를 간략히 살펴보자. 한 국가의 비교우위가 어떤 산업에 있는가는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하여 측정해볼 수 있으나, 그간 많은 연구에서 즐겨 사용되어온 것은 한 산업의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이라는 지표이다. [그림 7]의 (가)에는 1976~94년 기간중 우리나라 제조업 및 인적자본집약도별 각 산업의 순수출(수출 - 수입)이 점선으로 나타나 있다.

제조업 전체의 무역수지는 1976년부터 1994년까지 전기간에 걸쳐 흑자였다. 이는 우리나라가 전기간에 걸쳐 제조업부문에서 비교우위를 가졌다는 것을 나타내며, 농산물 및 원유 등 광물자원을 많이 수입하고 이를 사용하여 제조업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무역구조를 반영한다. 제조업 순수출은 1975년 이후 198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그 이후로는 감소하여 1991년에 저점을 보이다가 1993년까지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순수출이라는 지표는 제조업 규모의 증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변수이므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에 대해 경제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그림 7]의 (나)와 (다)에는 순수출을 각각 무역액(수출+수입)으로 나눈 값인 무역특화계수와 순수출을 출하액으로 나눈 값이 나타나 있다.<sup>9)</sup> 이 두 그림에서 나타나는 순수출의 변화패턴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순수출을 출하액으로 나눈 (다)를 중심으로 논의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여기에 나타난 제조업의 출하액대비 순수출은 70년대 말의 경기침체를 제외하고는 1976년 이후 1986년까지 8% 정도에서 12% 정도로 완만히 증가하나, 흔히 3저호황이라고 일컬어지는 1986~88년 기간 이후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90년대에 들어와서는 80년대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진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 기간중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수출 비중이 급격히 증가한 것에 주로 기인한다. 총수출입에 대한 제조업의 수출입 구성비의 변화추이를 통하여 수출과 수입의 변화를 각각 살펴보면(표 5), 우선 제조업의 수출이 총수출에서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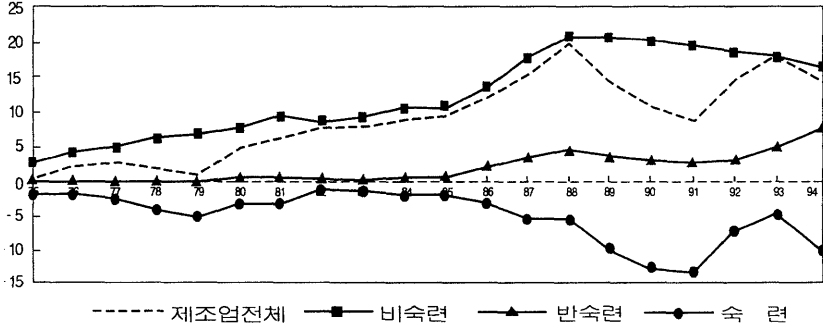
9) 비숙련, 반숙련, 혹은 숙련산업 내에서도 개별 산업의 수출입패턴은 매우 다를 수 있다. 뒤에서도 언급하겠지만, 예를 들어 섬유와 의류는 무역패턴이 매우 상이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비숙련산업으로 함께 분류되었다. 또 다른 예는 반숙련산업의 일반기계와 수송기계를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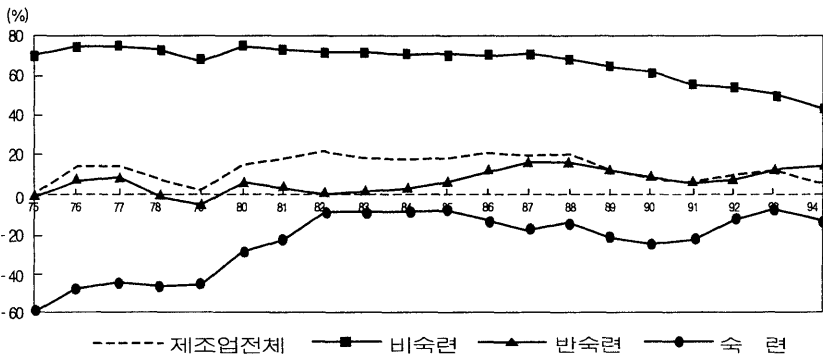
[그림 7] 산업별 순수출의 추이

(가) 수출 -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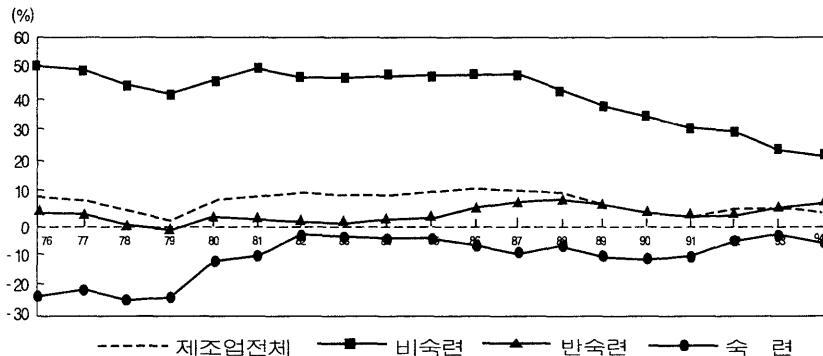
(10억달러)



(나) 무역특화계수 : (수출 - 수입)/(수출 + 수입)



(다) 출하액대비 순수출 : (수출 - 수입)/출하액



〈표 5〉 제조업 무역구성비의 추이(1975~94)

(단위: %)

	수 출				수 입			
	75~80	81~85	86~90	91~94	75~80	81~85	86~90	91~94
제 조 업	91.5	95.2	95.9	97.0	61.3	59.4	73.5	74.7
비제조업	8.5	4.8	4.1	3.0	38.8	40.6	26.5	25.3
전 산 업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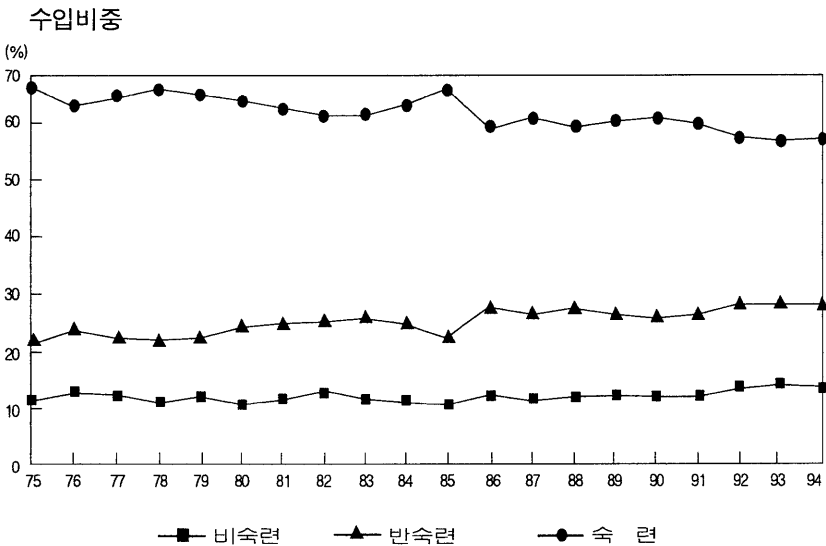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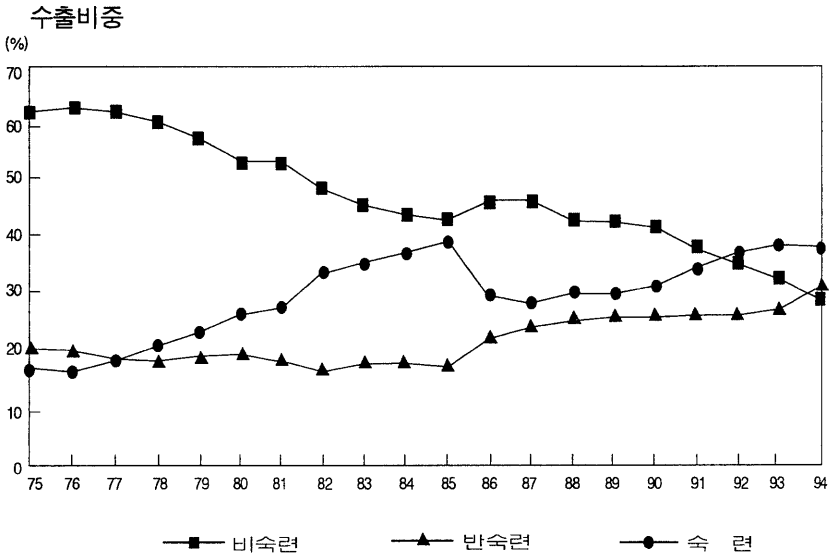
자료 : 관세청, 『무역통계』, 각년도에서 계산.

하는 비중은 70년대 후반기의 92% 수준에서 90년대 전반기에는 97%로 점진적으로 높아져 온 반면, 제조업의 수입이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년대 후반기의 61% 수준에서 90년대 전반기에는 약 75% 수준으로 급격히 높아졌다. 특히 80년대 전반기와 후반기 사이에 일어난 변화를 주목하여보면, 제조업 수입비중의 증가가 59%에서 74%로 동기의 수출비중의 증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빨랐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조업 출하액 대비 순수출이 1988년 이후 감소한 것은 수출감소보다는 수입의 급격한 증가에 어느 정도 기인한다고 유추해볼 수 있겠다.

#### 산업별 수출, 수입

이제 제조업을 인적자본집약도에 따라 비숙련, 반숙련, 숙련 등 세 가지 산업으로 나누어 수출과 수입의 변화추이를 살펴보기로 하자. [그림 8]에는 산업별 수출 및 수입의 제조업내 구성비가 나타나 있다. 먼저 전체적으로 눈에 띄는 점은 산업별 수출 비중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급격히 바뀌는 데 비하여 수입비중은 놀라울 정도로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실 어느 국가가 한 산업에서 비교우위를 잃어갈 때(얻어갈 때) 그 산업의 수출은

[그림 8] 제조업 인적자본집약도별 산업의 수출입 비중 (1975~94)



감소(증가)하고 수입은 증가(감소)하는 것이 자연스런 현상일 것이다. 그러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산업의 수출비중이 급격히 변화하는 반면 수입비중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그 원인을 살펴보는 것은 본고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것은 우리나라가 중고등학교 학력의 인구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반숙련산업의 수출비중의 증가속도는 매우 미미하였으며, 반숙련산업의 수입비중은 감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전기간에 걸쳐 완만히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반숙련산업의 수출비중의 증가속도는 오히려 숙련산업의 수출비중 증가속도에 비해서도 느렸다. 또한 전기전자 및 일반기계 등으로 이루어진 반숙련산업의 수입비중이 감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였다는 사실은 자본재에 대한 높은 해외의존도가 지속되었다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sup>10)</sup>

### 산업별 순수출

이번에는 각 산업별 순수출의 추이를 살펴보자. [그림 7]의 (다)를 보면, 먼저 섬유·의류 등 비숙련산업의 출하액 대비 순수출은 1976년 이후 1987년경까지 약 50% 수준에서 변화 없이 유지되다가, '3저 호황' 말인 1988년 이후 1994년까지는 급격히 감소한다. 80년대 후반 이후 비숙련산업의 출하액 대비 순수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은 수입증가보다는 동남아 및 중국의 성장에 기인한 의류 및 신발산업의 급격한 수출감소에 주로 기인한

10) 우리나라의 수입의존도에 관한 연구는 유정호(1995)를 참조하기 바람. 그는 여기에서 우리나라 및 일본, 대만의 수입의존도 구조를 비교하면서 수입의존도가 높은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관념이 타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다. 이 그림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만한 점은 1994년 시점에도 비숙련산업의 순수출이 양의 부호를 갖는다는 것인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비숙련산업에 대해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급격히 상실하고는 있지만, 1994년 시점에도 여전히 비교우위가 있다는 점이다.

반면 반숙련산업의 순수출은 절대액으로 보거나 출하액 혹은 무역액 대비로 보거나 전기간에 걸쳐 매우 완만히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가 반숙련산업에서 비교우위를 획득해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11)</sup> 우리나라의 인적자본 축적이 주로 반숙련(혹은 중등교육)노동력의 증가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반숙련산업에서의 비교우위 획득은 예상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반숙련산업에서 출하액 혹은 무역액 대비 순수출의 증가세, 또는 다른 말로 하면 비교우위의 획득속도는 앞서 보여준 우리나라의 급속한 반숙련노동력의 증가속도를 감안할 때 놀랄 정도로 느리다고 생각된다. 특히 '3저 호황' 이후에는 두 가지 지표가 모두 감소 내지는 정체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숙련산업의 순수출은 1976년부터 1982년까지는 약 -25%에서 -5%로 급격히 증가하지만 그 이후 1991년까지는 오히려 완만히 감소하는 현상을 보여주며, 1991년 이후 다시 약간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1993년의 수준은 1982년의 수준과 거의 비슷하다. 이 산업의 순수출이 전기간에 걸쳐 陰數라는 점은 우리나라가 숙련산업에서 비교우위를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숙련산업의 순수출이 70년대 중반부터 1982년까

11) 한 가지 지적할 필요가 있는 점은 반숙련산업으로 분류된 기계산업 내에서도 일반기계와 수송용기계산업의 무역패턴이 무척 다르다는 것이다. 먼저 일반기계산업은 전기간에 걸쳐 순수출이 음수인 반면 수송용 기계산업은 1981년 이후 계속 순수출이 양수이다.

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산업의 교역 조건(수출가격/수입가격)이 1976년부터 1978년까지 상당히 개선된 것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1982년 이후 출하액대비 혹은 무역액대비 순수출이 10여년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숙련 노동력의 본격적인 증가가 80년대 후반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그리 놀라운 현상이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제조업의 출하액 혹은 무역액대비 순수출이 80년대 후반 이후 감소하고 있는 현상은 비숙련산업에서 이 지표가 급속히 감소하는 데 반해 반숙련산업에서는 이를 상쇄할만한 증가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 반숙련산업에서 핵셔올린 구축현상?

이와 같이 반숙련산업에서 비교우위 획득속도가 더딘 이유는 무엇인가?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여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반숙련노동력의 급속한 축적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적자본 구성상의 변화가 우리나라 요소부존도의 독특성을 상실하는 방향으로의 변화였다고 가정하자. 이는 반숙련노동력을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의 세계시장에서의 공급이 이미 풍부하거나 혹은 풍부해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이러한 재화의 상대가격은 이미 낮거나 혹은 하락할 것이고 이러한 상대가격체계 혹은 상대가격체계의 변화는 우리나라가 이 부문의 비교우위를 획득하는 것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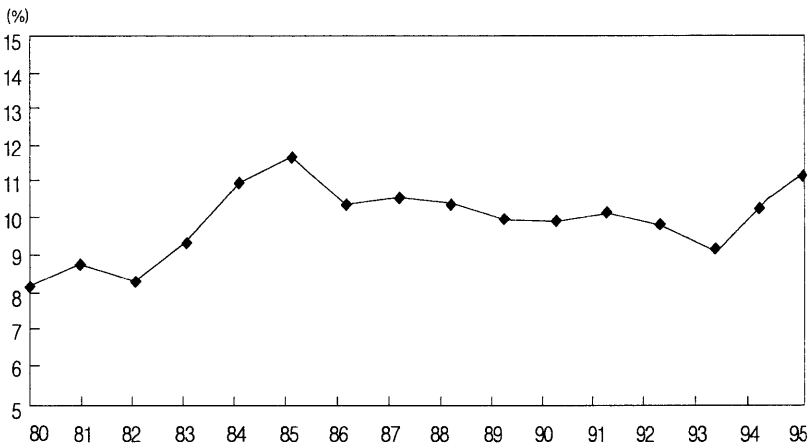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의 반숙련부문 수출품의 세계시장 상대가격이 특히 80년대 중반 이후 하락추세에 있었다는 점은 이러한 설명에 설득력을 더해준다고 할 수 있겠다. 이렇

게 놓고 볼 때 반숙련산업의 부진한 비교우위 획득속도는 요소부존도의 독특성 상실 및 교역조건 하락으로 특징지어지는 핵셔올린 구축가설과 일맥상통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위와 같은 현상만 보고 핵셔올린 구축현상이 일어났다고 단정지을 수 없는 측면도 있다. 그 이유 중 주된 것은 대략 다음과 같다. 먼저 이러한 현상은 얼마든지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우리 경제의 기술진보가 80년대 후반 이후 빨라져서 투자의 수익률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기계장비 등 반숙련산업의 수입이 증가하여도 위와 같은 현상이 관찰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GDP대비 자본재수입비율이 80년대 중반 이후 증가한 것은 [그림 9]에서 확인된다.

특히 많은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총요소생산성이 1970년대보다 1980년대 이후 더 빠르게 증가하였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점,<sup>12)</sup>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가 급격히 증가하

[그림 9] GDP대비 자본재 수입



12) Young(1995) 및 Collins and Bosworth(1996).

고 있다는 점 등을 놓고 볼 때, 이러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둘째로, 본고에서와 같이 3財 3要素의 경우, 2財 2要素 경우처럼 한 요소가 풍부하게 부존되어 있는 국가가 그 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수출한다는 명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요소집약도에 관한 매우 제약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13)</sup> 또한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얼마나’ 수출하여야 하는가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정량적 분석을 위한 모델이 필요한데, 구체적인 모델을 선택하는 것은 모델의 제약적인 가정을 만족하여야 한다는 나름대로의 위험도 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제약조건이 만족되는가를 점검하여볼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 경우에도 위와 같은 현상이 요소집약도에 대한 조건이 충족이 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인지 아니면 상대적 요소부존도의 변화 및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비교우위의 구축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인지를 구별하기는 쉽지 않다. 더군다나 과연 산업 분류가 의미있게 되었는가, 교육의 성취도에 따른 인적자본의 구분이 합당한가, 물적자본과 같은 중요한 생산요소를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잘못된 분석을 할 수 있지 않는가와 같은 문제들을 생각하면, 이러한 어려움은 더욱 가중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헷셔올린 구축가설에서 상정하는 재화의 상대가격 변화가 위의 현상과 함께 관찰된다면 헷셔올린 구축현상의 존재를 전적으로 부정하기는 어렵게 된다. 뒤에서 보다 상세히 살펴보겠지만 재화 상대가격의 변화는 헷셔올린 구축

13) Leamer(1984)는 재화의 숫자와 요소의 숫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요소의 상대적 풍부성이라는 개념에 대한 정의만 다시 하면 한 나라가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부존된 요소의 서비스를 수출하고 희소하게 부존된 요소의 서비스를 수입한다는 명제(Hecsher-Ohlin-Vanek Theorem)는 여전히 성립한다는 것을 쉽게 설명하고 있다.



가설에 의하여 예상되는 것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여기서 ‘부분적’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재화의 상대가격이 반숙련 산업에서는 핵셔올린 구축가설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변하나 우리나라가 중국 등에 의해 비교우위를 잃어가는 비숙련산업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뒤에서 하기로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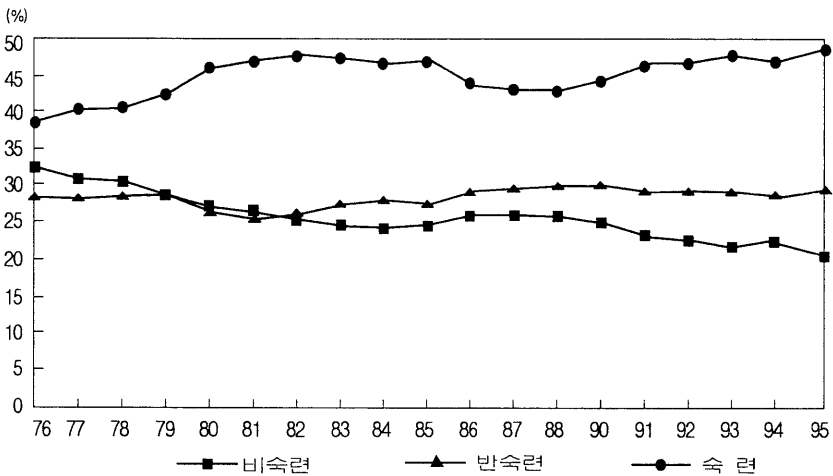
### 3. 생산비중 및 무역의존도로 본 비교우위의 변화

#### 산업별 생산비중의 변화

한 나라의 비교우위가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는 앞서 본 순수출 이외에도 생산비중의 변화나 무역의존도—수출 및 수입의존도—의 변화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sup>14)</sup> [그림 10]에는 인적자본집약도별 각 산업의 생산액 구성비의 추이가 나타나 있다. 섬유·의류 등 비숙련산업의 생산비중은 역시 전기간에 걸쳐 감소하고 있다. 반면, 화학 등 숙련산업의 생산비중은 전체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처럼 보이나 82년을 기준으로 하면 그 이후의 생산비중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은 앞서 살펴본 순수출이나 수출비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이다. 전기·전자 및 일반기계 등 반숙련산업의 생산액 증가가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점도 다시 확인된다.

14) 한 국가의 비교우위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다른 방법들 가운데 하나는 RCA지수(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ndex)를 고려해볼 수도 있는데, 이는 한 국가의 생산액이 무역대상국 전체의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대비 어떤 특정 산업의 생산액이 무역대상국 전체의 그 산업의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비율로서, 이 지표(RCA지수)가 1보다 클 때 그 국가가 그 산업에 비교우위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그림 10] 제조업 인적자본집약도별 산업의 생산비중(1976~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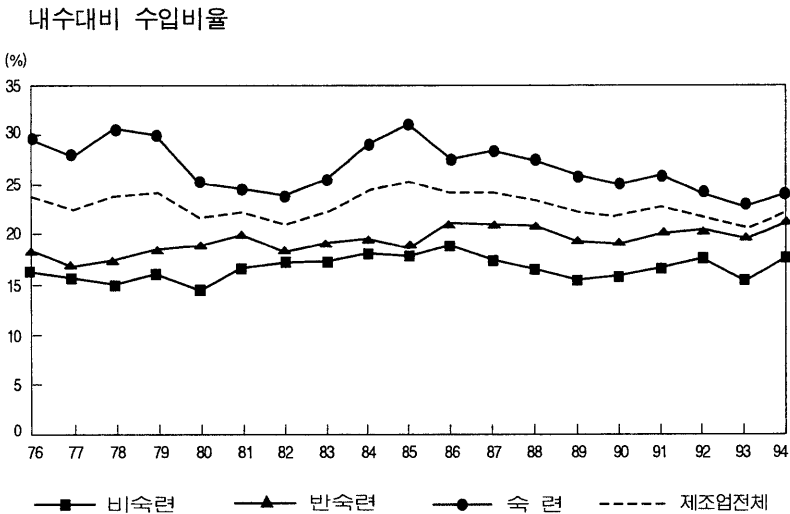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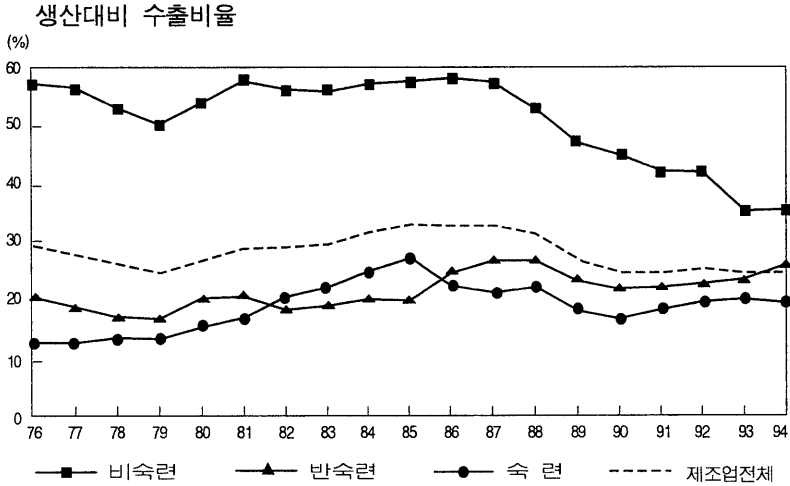
### 생산대비 수출비율의 변화

이번에는 인적자본집약도별 각 산업의 무역의존도의 변화추이를 [그림 11]을 통하여 살펴보자. 먼저 제조업 전체의 생산대비 수출비율은 76년 이후 약 30% 가량을 유지하여오다가 80년대 후반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는데, 이러한 현상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제조업의 출하액 혹은 무역액대비 순수출이 80년대 후반 이후 감소하는 현상과 일맥상통한다. 섬유·의류 등 비속련 산업의 생산대비 수출비율은 1976~87년 기간중 70년대 말의 경기침체를 제외하고는 대략 50~60% 선에서 유지되다가 1988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1994년에는 약 35% 선으로 감소한다.

### 내수대비 수입비율

이와 반대로 반속련산업의 생산대비 수출비율은 전기간에 걸쳐 완만히 증가하나, 그 증가세는 비속련산업의 감소세에 비하여 현저히 느리다. 이러한 현상은 앞서 순수출을 통하여본 비교우위

[그림 11] 무역의존도의 변화추이(1976~94)



의 변화상 특징과 매우 유사하다. 또한 숙련산업의 수출비율은 80년대 초를 기준으로 볼 때 그 이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생산대비 수출비율은 80년대 전반기에 숙련산업이 반숙련산업보다 높았던 것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기간동안

비숙련, 반숙련, 숙련의 순서로 큰 구조가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요소부존도가 반숙련노동력 위주로 급속히 변화하는 추세에 비추어 반숙련노동집약적 산업의 수출비율의 증가가 두드러지지 않는 것은 산업별 무역의존도 추이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 내수대비 수입비율의 변화

제조업 전체의 내수대비 수입비율은 1976~94년 기간중 20~25% 선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80년대 후반을 기준으로 보면 약간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80년대 후반 이후의 수입비율의 감소는 주로 화학 등 숙련산업에서의 감소추세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80년대 후반 이후 숙련산업의 생산대비 수출비율 및 내수대비 수입비율의 감소, 그리고 앞서의 [그림 10]에서 지적한 대로 80년대 초반 이후 생산비중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은 화학 등 숙련산업이 80년대 후반 이후 보다 내수 위주로 바뀌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산업별 내수대비 수입비율 추이의 가장 큰 특징은 전기·전자, 일반기계, 수송용 기계 등 반숙련산업의 수입비율은 수출비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감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완만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현상은 앞서 수출 및 수입비중의 변화에서 지적하였듯이 자본재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또 하나 수입비율 추이의 특이한 점은 비숙련산업의 수입비율이 80년대 후반 이후 급격한 수출비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점이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는 향후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섬유·의류 등 비숙련산업이 80년대 후반 이후 내수 위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 핵셔올린 구축현상의 징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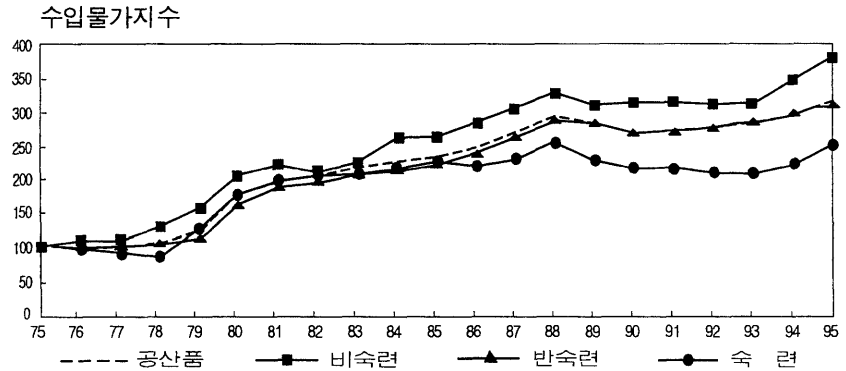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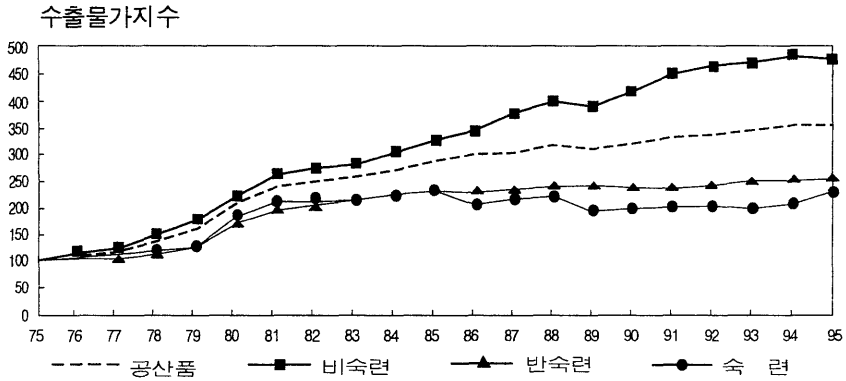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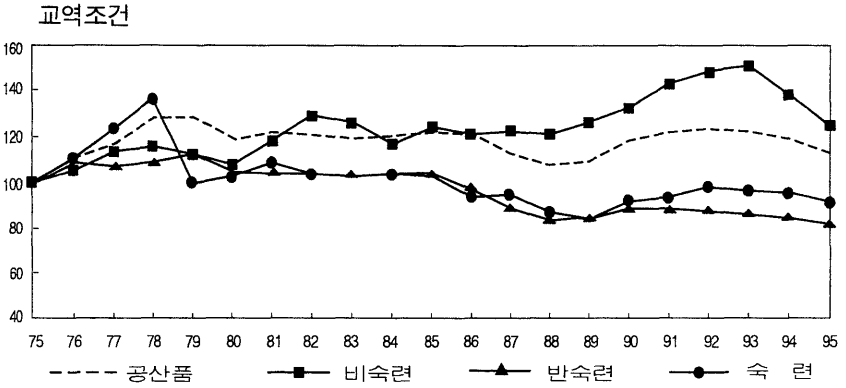
생산비중 및 무역의존도를 통하여 관찰된 현상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섬유·의류 등 비숙련산업의 비교우위는 80년대 이후 급속히 상실되고 있으며 이 산업이 보다 내수 위주로 전환되고 있다. 반면 전기·전자, 일반기계 등 반숙련 산업에서 우리나라는 점차적으로 비교우위를 획득하고는 있으나, 그 속도가 비숙련산업의 비교우위 상실속도에 비하여 느리고, 또한 수입의존도가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화학 등 숙련산업에서는 80년대 초반 이후 비교우위를 획득하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가 보이지 않으며, 80년대 후반 이후 생산비중의 증가도 주로 내수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위와 같은 여러 지표들의 변화는 우리나라 제조업에 핵셔올린 구축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문을 더욱 강하게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겠다.

### 4. 교역조건의 변화

핵셔올린 이론에서 국가간 상대적 요소부존도의 변화로 인한 효과가 국제적으로 전파되는 경로는 국제적으로 이동이 가능한 생산물의 상대가격 변화밖에 없다. 생산물 상대가격 변화는 ‘핵셔올린 구축가설’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며, 따라서 만일 동 가설과 일치하는 생산물 상대가격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다면 앞서 논의한 여러 가지 증거들은 의심스러운 것이 되는 것이다.<sup>15)</sup> [그림 12]에는 1975년을 100으로 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인적자본집약도별 제조업 각 산업의 교역조건(수출가격/수입가격)의

15) Leamer and Lundborg(1995), p.26

[그림 12] 산업별 교역조건 변화 및 수출입물가지수



변화추이가 나타나 있다. 통상적으로 교역조건은 달러표시 가격으로 비교연도의 품목별 가중치를 사용하여 계산된 수출입단가의 비율로 계산된다. 그러나 여기서는 교역조건을 재화의 원화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된 수출물가지수를 수출단가지수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그 이유는 품목별 수출입단가의 경우 자료의 시계열이 1988년 이후에서나 이용이 가능한 반면 수출입물가의 시계열은 본고의 전분석기간에 대해 이용이 가능하여 교역조건 변화의 장기적 추세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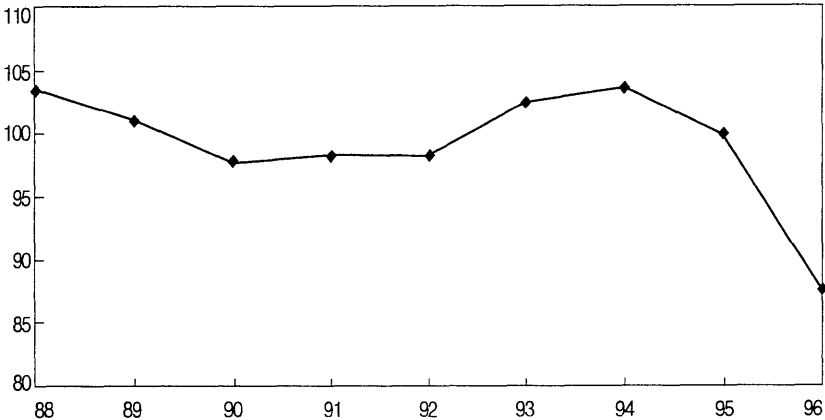
### 제조업 전체

먼저 제조업 전체(공산품)의 교역조건은 1975년에서 1995년까지 전기간중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1995년의 공산품 교역조건지수는 약 113으로 1975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1975년이 석유파동으로 인하여 교역조건이 악화되었던 시점임을 감안하여 공산품 교역조건이 전기간 평균(118)과 비슷한 1980년을 기준으로 보면 1995년의 공산품 교역조건은 약간 하락한 수준이다. 결국 수출입물가를 사용한 교역조건지수의 변화를 통해서도 80년대 중반 이후 제조업 교역조건이 하락한 현상을 발견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수출입단가를 통하여 계산된 교역조건은 1988년 이후 1996년까지의 기간중 소위 반도체 호황이라고 불리는 1994년 전후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추세가 두드러지게 보인다(그림 13). 이러한 교역조건 하락세는 1997년에도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핵셔올린 구축가설과 일치하는 제조업의 교역조건 하락현상이 적어도 1988년 이후에는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3] 단가 교역조건의 변화(전산업, 1995=100)

(교역조건지수)



산업별 교역조건<sup>16)</sup>

이러한 공산품 교역조건의 변화를 인적자본집약도로 구분되는 각 산업별로 나누어보면,<sup>17)</sup> 섬유·의류 등 비숙련산업의 교역조건은 전기간에 걸쳐 개선되어온 반면 전기·전자, 일반기계 및 수송용 기계 등 반숙련산업과 화학 등 숙련산업의 교역조건은 전기간에 걸쳐 점차적으로 악화되어온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1995년의 반숙련산업의 교역조건지수는 약 82로 비숙련산업(약 125) 및 숙련산업(약 92)에 비하여 교역조건의 악화가 가장 심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반숙련산업의 교역조건 악화는 이 산업의 수입물가지수의 증가가 제조업 전체

16) 이하에서는 산업별 수입품 대비 수출품의 상대가격을 그 산업의 교역조건이라 칭한다. 앞서 설명한 제약상 수출입단가지수 대신 수출입물가지수를 이용하여 각 산업의 교역조건지수가 계산되었다.

17) 앞서 언급한 이유들로 인하여 산업별 교역조건지수는 수출입물가를 통하여 계산하였다.



수입물가지수의 증가와 거의 유사하였던 것에 비해 수출물가지수의 증가가 제조업 전체 수출물가지수의 증가에 훨씬 못미쳤기 때문에 볼 수 있다.

비록 반숙련산업의 교역조건 하락폭보다는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화학 등 숙련산업의 교역조건도 1988~92년 기간중 약간 개선된 것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숙련산업은 수출물가지수의 증가율이 매우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입물가지수의 증가율 역시 낮아서, 그 결과 교역조건의 하락폭이 반숙련산업에 비하여 덜 두드러졌다.

이와 같은 인적자본집약도별 각 산업의 교역조건의 변화추이는 각 산업 내의 주요 업종의 교역조건의 변화추이에서 더욱 현저히 드러난다. [그림 14]에는 비숙련, 반숙련, 숙련산업의 대표적 업종인 섬유·의복·가죽제품, 금속제품·기계장비, 화학·석유·고무제품 등 세 가지 업종의 교역조건을 나타내고 있다.<sup>18)</sup>

95년에 금속제품·기계·장비의 교역조건지수는 화학·석유·고무제품(약 82)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인 69 정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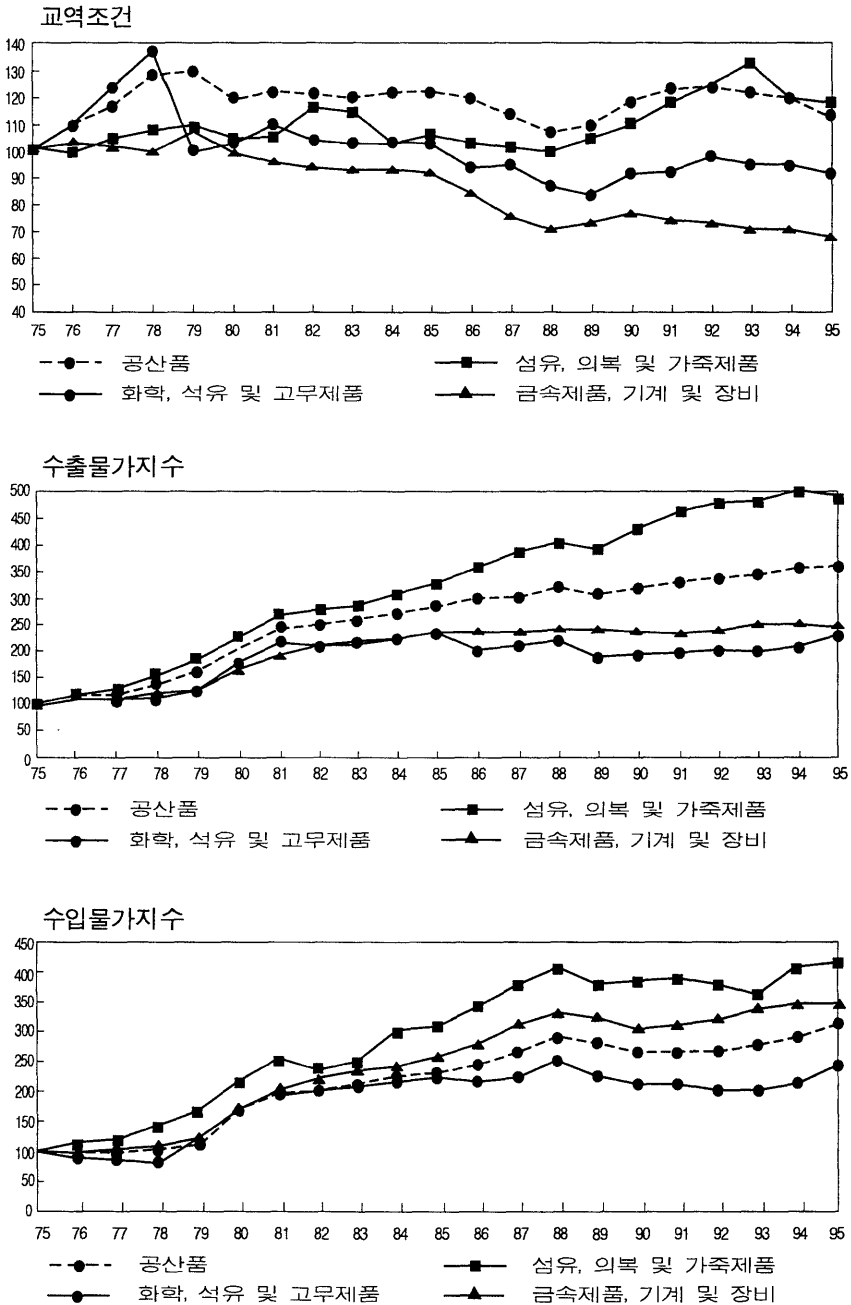
산업별 교역조건 혹은 상대가격의 변화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더욱 상세히 살펴볼 수 있다. [그림 15]는 1975년 시점을 100으로 하였을 때 4개 연도(각각 80, 85, 90, 95년)의 수출물가지수(가로축)와 수입물가지수(세로축)를 나타낸 것이다.<sup>19)</sup>

이 그림에서 눈여겨 볼 것은 다음의 두 가지 측면이다. 첫째는 각 품목이 45도선을 따라 얼마나 원점에서 가깝거나 먼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각 품목이 45도 선상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하는 것이다. 만일 한 산업이 단순한 헉셔올린 이론이

18) 이 세 가지 업종의 수출물가 및 수입물가의 90년도 시점의 가중치가 제조업 전체 가중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84% 및 76% 정도였다.

19) 이 그림은 Leamer and Lundborg(1995)가 사용한 방식을 따라 작성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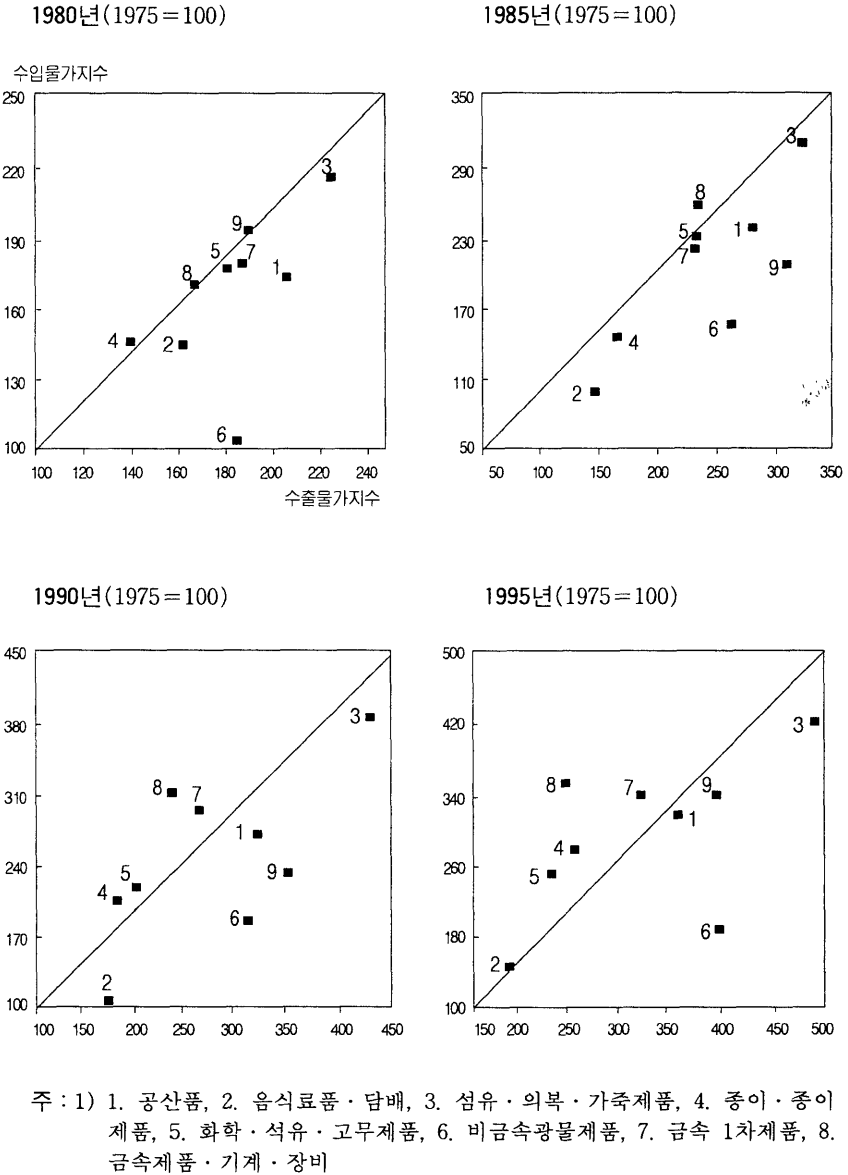
[그림 14] 주요업종별 교역조건의 변화 및 수출입물가지수



가정하는 바와 같이 동질적인 한 가지 재화만 생산한다면 그 산업 내에서 수출품과 수입품 혹은 수출물가지수와 수입물가지수의 구분이 필요없게 되어 모든 점들이 45도 선상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때 원점에서 먼 곳에 위치한 품목일수록 상대가격이 상승한 품목이고 가까운 곳에 위치한 품목일수록 상대가격이 하락한 품목이다. 또한 동질적 재화를 가정할 경우 한 국가는 특정 재화를 수출 혹은 수입만 할 것이므로, 재화간 상대가격의 변화가 곧 교역조건의 변화가 될 것이다. 이 경우 핵셔올린 구축가설과 일치하는 교역조건의 변화가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재화간 상대가격의 변화만 살펴보면 족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한 산업 내에서도 수출품과 수입품은 완전히 동질적인 재화가 아닐 것이기 때문에 한 산업을 표시하는 점은 45도선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45도선 위의 점들은 기준시점인 75년보다 수출물가지수보다 수입물가지수가 많이 오른 산업이고, 45도선 아래의 점들은 그 반대의 경우이다. 이 경우 핵셔올린 구축가설과 일치하는 교역조건의 변화가 나타났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산업간 상대가격(45도선상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각 산업 내에서의 교역조건을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제조업 전체의 교역조건(그림에서 '1'로 표시)은 1975년부터 1980년 기간중 가장 많이 개선되었고 그 이후 1995년까지는 점차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점은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며 80년대 이후 핵셔올린 구축가설의 존재를 뒷받침한다. 이제 산업별 상대가격 및 교역조건의 변화를 수출입물가지수에서 가중치가 큰 섬유·의복·가죽제품('3'으로 표시), 화학·석유·고무제품('5'로 표시), 그리고 금속제품·기계·장

[그림 15] 업종별 수출입물가지수의 변화



비('8' 로 표시)를 중심으로 살펴보자.<sup>20)</sup>

먼저 섬유·의복·가죽제품은 1975~95년 기간중 상대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품목으로, 수출물가의 상승이 수입물가의 상승보다 커서 이 품목의 교역조건은 개선되어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상대가격이 가장 많이 하락한 품목은 음식료품 및 담배였다.

한편 조립금속, 전기·전자, 일반기계, 수송용 기계, 정밀기계 등을 포함한 금속제품·기계·장비는 1975년 이후 공산품 전체와 비교할 때 상대가격이 하락하였으며, 특히 1985~95년 기간중에는 상대가격이 더욱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 품목의 교역조건은 전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며 그 하락폭은 전품목 중 가장 두드러졌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나라가 이 품목 중 수출하는 재화의 가격에 비해 수입하는 재화의 가격이 점점 더 비싸졌다는 것이다. 화학·석유·고무제품도 1975년 이후 공산품 전체에 비하여 상대가격이 낮아졌으며, 특히 1985년 이후 상대가격의 하락이 두드러졌다. 또한 이 품목의 교역조건도 1985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한편 전기간중 교역조건이 가장 많이 개선된 품목은 비금속광물제품이었으나 이 품목이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았다.<sup>21)</sup>

이와 같은 사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본고에서 반숙련노동집약적 산업으로 분류된 전기·전자, 일

20) 1990년도에 수출물가지수 및 수입물가지수에서 공산품의 가중치는 각각 969.4 및 750.9였으며, 섬유·의복·가죽제품은 각각 350.9 및 49.3, 화학·석유·고무제품은 각각 112.6 및 179.9, 금속제품·기계·장비는 각각 347.9 및 339.2였다.

21) 비금속광물제품의 90년 공산품 수출물가지수 및 수입물가지수 가중치는 각각 7.0/969.4 및 15.4/750.9이다.

반기계, 수송용 기계 등 품목의 상대가격은 공산품 전체와 비교하여 특히 80년대 중반 이후 크게 하락하였고, 그 품목 내에서의 교역조건도 제조업 중 가장 많이 악화되었다. 숙련노동집약적 산업에 속하는 화학제품의 상대가격도 특히 80년대 중반 이후 크게 하락하였는데 하락폭은 음식료품·담배 다음으로 가장 컸으며, 교역조건도 역시 크게 악화되었다. 하지만 섬유·의복·가죽제품은 상대가격이 1975년 이후 전품목 가운데 가장 많이 상승하였으며 교역조건도 개선되었다.

그러면 위와 같은 현상은 앞서 제기한 헷서올린 구축가설과 얼마나 일치하는 것일까? 앞서 지적한 대로 헷서올린 구축가설의 요체는 상대적 요소부존도의 불리한 변화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반숙련산업에서의 상대가격 및 교역조건 악화는 헷서올린 구축가설을 뒷받침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반숙련노동 중심의 급속한 인적자본 축적에 따라 전기·전자, 일반기계, 수송용기계 등 반숙련노동을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산업에 유리하게 요소부존도가 바뀌어왔으나 이 산업이 일본, 독일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전통적 비교우위 부문이어서(다시 말하면 이러한 변화가 우리나라의 요소부존도의 독특성을 상실하는 방향으로의 변화였기 때문에) 이 부문의 교역조건 악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섬유·의류 등 비숙련노동집약적 산업의 상대가격 및 교역조건이 개선되어온 것은 헷서올린 구축가설이 의미하는 것과는 약간 차이를 보인다. 즉, 중국 및 동남아국가들이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우리의 수출시장을 잠식하여옴으로써 이 부문의 상대가격 또는 교역조건이 하락한다는 것이 헷서올린 구축가설이 의미하는 것인 데 반해, 실제로 이러한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교역조건이 개선되었다는 것이다.

왜 이 부문의 교역조건이 개선되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두 가지 극단적인 경우를 생각해보자. 먼저 비숙련산업이 의류와 섬유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고 우리나라가 중국 및 동남아의 세계시장진출 이전에 의류와 같은 단순노동집약적인 품목을 수출하고 비교적 인적자본집약도가 높은 섬유를 수입하고 있었다고 하자. 그 이후 중국 및 동남아국가가 단순노동집약적인 의류를 수출할 수 있게 되면 의류의 세계시장가격은 떨어질 것이다. 이때 만일 우리나라의 상대적 요소부존도가 계속 의류를 수출하고 섬유를 수입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머물러 있다면, 중국 및 동남아의 의류시장 진출은 우리나라 비숙련산업의 교역조건을 악화시킬 것이다. 이것이 바로 비교우위 구축가설이 의미하는 바의 일부이다. 그러나 만일 중국 및 동남아가 의류 수출을 시작한 이후 우리나라의 상대적 요소부존도가 섬유 수출 및 의류 수입에 유리하도록 바뀐다면 이때 우리나라의 비숙련산업의 교역조건은 중국 및 동남아의 진출에도 불구하고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좀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나라 비숙련산업의 교역조건은 중국 및 동남아의 진출의 ‘덕분에’ 개선될 것이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중국 및 동남아의 진출로 인하여 의복을 수입하고 섬유를 수출하는 무역의 이익, 즉 후생적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가 중국 및 동남아의 진출 이전에 의복을 수입하고 섬유를 수출하는 무역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들 국가의 의복 수출로 인한 의복의 상대가격 하락은 우리나라 비숙련산업의 교역조건을 개선시킬 것은 자명하다.

위의 예로부터 알 수 있듯이, 중국 및 동남아가 우리나라의 전통적 수출시장에 진출하고 우리나라가 이러한 상황변화에 대응하여 요소부존도를 변화시키지 못할 때에 핵셔올린 구축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본고의 분석에서 나타나듯이, 비숙련산업의 교

역조건이 개선되었다는 것은 중국 및 동남아국가들이 우리의 수출시장으로 진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섬유와 같은 상대적으로 인적자본집약적인 품목의 수출에 유리한 인적자본구조로 전환하였거나, 아니면 중국 및 동남아국가들이 우리나라의 수입품 분야로 진출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고에서 밝히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의 의복수출이 80년대 후반 이후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섬유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이 중 앞의 경우가 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제조업에서 핵셔올린 구축현상은 80년대 중반 이후 '부분적'으로 일어났다고 판단된다. 즉, 상대적으로 인적자본집약도가 높은 반숙련산업에서의 상대가격 및 교역조건의 지속적 하락은 이 가설의 한 측면을 뒷받침하나, 비숙련산업에 대한 이 가설의 주장은 뒷받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반숙련산업에서의 상대가격 및 교역조건 하락이 비숙련산업에서의 상대가격 및 교역조건 상승보다 제조업 전체의 교역조건 악화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제조업 전체로는 80년대 후반 이후 핵셔올린 구축현상이 일어났다고 판단된다.

## 5. 산업내 무역

핵셔올린 이론은 산업간 무역패턴을 설명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제품차별화 및 규모의 경제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산업내 무역을 설명하는 데는 부적합하다는 비판을 종종 받아왔다. 만일 아주 세분화된 품목에 대하여 산업내 무역이 지배적이라면 동질적 재화 및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핵셔올린 이론에만 의존하여 우리나라의 무역구조를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표 6〉은 인적자본집약도별 세 가지 산업 중 대표적인 업종들의 산업내 무역지수의 변화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i*산업의 산업내 무역지수는 다음과 같은 통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측정하여 백분율로 바꾸었다.

$$\text{산업내 무역지수}_i = [1 - |수출_i - 수입_i| / (수출_i + 수입_i)] \times 100$$

이 지수는 0에서 100까지의 값을 갖는 것으로 만일 해당 산업의 수출 혹은 수입이 0이라면 이 지수가 0의 값을 갖고, 수출과 수입이 정확히 일치하면 100의 값을 갖는다. 산업내 무역지수는 일반적으로 측정대상이 되는 산업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커지는 속성이 있다. 이 표의 산업의 범위가 무척 넓어 측정된 산업내 무역지수가 핵셔올린이론의 유용성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과연 산업내무역이 얼마나 지배적인가, 산업내

〈표 6〉 산업내 무역지수의 추이

	산업(구 KSIcode)	1975	1980	1985	1990	1994	75~94변화
비속련	의복 (322)	0.7	1.0	0.5	3.8	21.8	21.1
	신발 (324)	0.8	0.7	1.6	4.1	22.9	22.1
	섬유 (321)	56.4	32.4	43.9	52.2	49.7	-6.7
	가죽 (323)	89.3	90.5	81.9	66.8	61.2	-28.1
반속련	정밀기계 (385)	84.0	90.4	64.8	53.3	44.8	-39.2
	일반기계 (382)	18.1	88.0	49.1	58.8	68.2	50.1
	전기·전자 (383)	99.7	94.1	84.9	75.7	68.9	-30.8
	운수장비 (384)	46.1	90.4	82.6	70.1	71.4	25.3
속련	기타화학 (352)	20.1	23.5	26.4	31.0	42.5	22.6
	석유정제 (353)	84.5	13.5	77.8	41.4	68.9	-15.6
	기타 석유석탄제품 (354)	10.3	44.3	97.4	87.0	70.3	60.0
	산업용화합물 (351)	15.4	65.3	55.8	58.6	92.6	77.2

자료: 관세청, 『무역통계』.

무역의 산업별·시간대별 차이는 어떠한가 등에 대한 개략적인 이해를 얻는 데는 이 지수가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로, 전연도에서 절반이 넘는 산업이 산업내 무역지수가 50을 넘어 우리나라의 제조업 무역의 상당부분이 산업내 무역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둘째로, 1975년부터 1994년까지 산업내 무역지수의 변화분을 살펴보면, 산업내 무역지수가 증가한 산업과 감소한 산업이 공존하였지만 전체적으로 증가한 산업의 증가분이 감소한 산업의 감소분보다 훨씬 큰 양상을 보였고, 또한 감소한 업종 중 규모가 비교적 큰 업종은 전기·전자 정도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로 보아 산업내 무역이 증가하였다고 보아도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아마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서, 비숙련산업에 속하는 업종의 산업내 무역지수보다 반숙련 혹은 숙련산업의 산업내 무역지수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물론 비숙련산업 중에서도 섬유나 가죽의 산업내 무역지수는 반숙련의 정밀기계 또는 숙련의 기타화학보다도 크다. 하지만 1994년 기준으로 반숙련과 숙련산업의 대부분 업종의 산업내 무역지수는 60대 후반 혹은 그 이상으로서, 섬유, 의복 등 우리나라의 과거 비교우위산업의 산업내 무역지수(20대 초반)보다는 현저히 높다.

결국 지난 20여년 동안 우리나라의 상대적 요소부존도는 전체적으로 제품차별화 및 규모의 경제로 특징지어지는 품목의 생산이 유리해지는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재화의 상대가격 혹은 교역조건의 변화를 본고와 같이 요소부존도의 변화만으로 설명하는 방법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 IV. 결 론

본고는 우리나라의 제조업을 인적자본집약도에 따라 비숙련, 반숙련, 숙련 등 세 가지 산업으로 분류하여 다양한 실증적 자료 분석을 토대로 ‘핵셔올린 구축가설’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살펴 보았다. 본고의 분석결과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핵셔올린 구축가설은 80년대 중반 이후 부분적으로 뒷받침된다. 즉, 상대적으로 인적자본집약도가 높은 반숙련산업에서의 상대가격 및 교역조건 의 지속적 하락은 이 가설의 한 측면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비숙련산업에서는 중국 및 동남아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이 산업의 상대가격 및 교역조건이 상승하여 이 가설이 뒷받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반숙련산업에서의 상대가격 및 교역조건 하락이 제조업 전체의 교역조건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비숙련산업에서의 상대가격 및 교역조건 상승보다 두드러져 제조업 전체로는 80년대 후반 이후 교역조건 악화현상이 일어났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반숙련노동집약적인 부문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반숙련 및 숙련산업에서의 상대가격 및 교역조건 악화에 의해 주도된 전체 교역조건 악화현상은 우리 경제에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한다. 비교정태적인 관점에서 교역조건 악화는 후생의 손실을 의미한다. 이러한 후생손실은 우리가 만든 물건을 값싸게 수출하고 값비싼 물건을 수입하여야 하는 데에서 발생한다. 동태적으로 볼 때 반숙련 및 숙련산업에서의 상대가격 및 교역조건 악화는 이 부분에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요소의 상

대가격을 하락시킨다. 다시 말해 중등 및 고등교육인력의 상대임금을 하락시킨다는 것이다.<sup>22)</sup> 이러한 요소 상대가격의 변화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적자본의 축적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인적자본의 축적이 경제의 장기적 성장에 중요한 요소임을 감안할 때 인적자본을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의 상대가격 하락현상은 동태적인 관점에서 그다지 바람직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원인이 본고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요소부존도의 독특성 상실에 있다면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처방도 요소부존도의 독특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즉, 차별화 및 혁신능력을 보유한 양질의 인력양성이 필요하다. 만일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본고에서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기술적 요소에 있다면 그에 따라 정책적 처방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요소부존도의 독특성 상실 때문이라는 주장에 그친 것은 매우 아쉬운 일로서 이는 차후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22) 실제로 본고에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본고의 분석기간중 국졸 노동자의 임금에 비하여 중고등학교 및 대졸 노동자의 임금은 매우 빠른 속도로 하락하였다.

## ▷ 參 考 文 獻 ◁

金東石, 「環境規制와 國際競爭力」, 『KDI政策研究』, 제19권 제4호, 1997.

俞正鎬, 「韓國輸出의 市場占有率 分析: 對美·日·餘他 OECD 輸

- 出實績을 중심으로, 『韓國開發研究』, 제13권 제4호, 1991.
- \_\_\_\_\_, 『韓·臺·日의 輸入依存構造 比較』, 연구보고서 95-02, 한국개발연구원, 1995.
- Barro, R. and J. Lee, "International Measures of Schooling Years and Schooling Quality," *AER Papers and Proceedings*, Vol.86, No. 2, 1996, pp. 218~223.
- Collins, S. and B. Bosworth, "Economic Growth in East Asia: Accumulation versus Assimilation,"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2, 1996, pp. 135~203
- Denison, E., *Why Growth Rates Differ: Postwar Experiences in Nine Western Countries*, Washington: D.C.: Brookings, 1967.
- Hong, Wontack, "A Comparative Static Application of the Heckscher-Ohlin Model of Factor Proportions : Korean Experience," *Weltwirtschaftliches-Archiv*, Vol.123, No.2, 1987, pp. 309~324.
- \_\_\_\_\_, "Factor Intensities of Korea's Domestic Demand, Production and Trade : 1960~85," *International Economic Journal*, Vol.3, No.2, 1989, pp. 97~113.
- Leamer, E, *Sources of International Comparative Advantage: Theory and Evidence*, London, MIT Press, 1984.
- Leamer, E. and P. Lundborg, "A Heckscher-Ohlin View of Sweden Competing in The Global Marketplace," NBER Working Paper No. 5114, 1995.
- Psacharopoulos, G., "Returns to Investment in Education: A Global Update," *World Development* 22(9), 1994, pp. 1325~1343.
- Ramazani. M. Reza and Keith E. Maskus. "A Test of the Factor

Endowments Model of Trade in a Rapidly Industrializing Country :  
The Case of Korea,” *Review-of-Economics-and-Statistics*, Vol.75,  
No.3, 1993, pp. 568~573.

Snodgrass, D., “Education in East Asian Development: Some Issues and  
Cases,” HIID Development Discussion Paper No. 547, 1996.

Woo, C. and J. Lee, “Education in Korea: Attainments & Challenges,”  
paper presented at KDI/Center for Korean Studies at University of  
Hawaii joint conference on “Korea’ s Transition to High Pro-  
ductivity Society,” held at Honolulu in February 1998.

Young, A., “The Tyranny of Numbers: Confronting the Statistical Realities  
of the East Asian Growth Experienc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0, 1995, pp. 641~680.

## ■ 論 評

### 李 鍾 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최근 한국경제가 금융·외환위기를 겪고 IMF구제금융을 받는 심각한 위기에 당면하게 됨으로써 과연 이러한 위기의 근본원인이 무엇인가에 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90년대에 들어와 경상수지의 적자가 크게 늘어나고 외채의 누적으로 외환위기를 맞게 된 사실을 고려하면 다른 무엇보다도 최근 들어 우리 수출산업의 기술력과 국제경쟁력이 크게 하락하여왔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 우리 경제의 주력 수출산업이었던 의복·가죽·나무 등 경공업의 경쟁력은 생산력의 저하와 후발 개도국의 추격으로 계속 하락하여왔으며 이에 반하여 80년대 후반부터 정부가 중점 지원·육성하여온 기계·화학 등의 산업은 선진국의 높은 기술수준의 벽에 부딪혀 아직 국제경쟁력을 갖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경제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고도성장의 궤도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수출산업의 국제경쟁력이 하락하게 된 요인을 심층분석하고 앞으로 세계시장에서 비교우위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노력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할 것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시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게 우리나라 제조업의 무역구조와 비교우위의 변화를 이론적·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따라서 학술적·정책적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이 연구의 특징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무역구조와 비교우위의 변화를 핵서-올린 이론에 기초한 '비교우위 구축가설'에 입각하

여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이 가설의 핵심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한 경제의 상대적 요소부존도가 바뀌게 되고 이에 따라 요소부존비율의 독특성을 상실하면서 교역조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 가설을 한국의 제조업에 적용하여 우리 경제가 과거 20년간 급속히 인적자본을 축적함으로써 단순노동력에 비해 점차 인적자본이 풍부한 요소부존비율을 갖추게 되었으나 전통적인 단순노동력집약적인 산업에서는 후발국과의 경쟁으로, 인적자본집약적 산업에서는 선발 선진국과의 경쟁으로 설 자리를 찾지 못하고 비교우위를 확보하지 못한 채 교역조건이 악화를 겪게 되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저자는 우리나라 제조업에 속한 세부산업들을 인적자본집약도에 따라 비숙련노동집약적 산업, 반숙련노동집약적 산업, 숙련노동집약적 산업으로 나누어 우리나라의 요소부존비율이 반숙련노동(중등학교 이상 노동자)집약적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숙련산업의 비교우위 획득속도가 매우 느리고 이 산업의 교역조건 또한 하락하였음을 자료를 통해 보임으로써 가설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있다.

이 논문은 전체적인 구성이나 전개과정, 결론의 도출과정에 큰 문제가 없고 방대한 산업 및 무역자료를 잘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어 학술적 기여도가 높다 하겠다. 우리 수출산업의 구조가 바뀌면서 비교우위의 구축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국제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는 저자의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있고 논평자 역시 크게 공감하는 바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제조업의 비교우위 하락을 과연 인적자본 요소부존비율의 독특성 상실과 반숙련노동집약적인 산업의 세계시장에서의 상대가격 하락으로만 설명 가능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의문이라 하겠다. 즉, 비교우위의 구축을 설명할 수 있는 또다른 대체가설에 비교하여 과연 저자의 설명이



얼마나 더 타당한 것인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저자가 분류한 반숙련노동집약산업에 포함된 전자·자동차·선박·철강산업은 80년대 이후 우리 경제에서 대기업에 의한 과잉 중복투자가 이루어진 대표적인 산업들이다. 따라서 이들 산업에서의 비교우위 하락과 경쟁력 상실을 설명하기 위하여 인적자본의 축적에 의한 요소부존비율의 독특성 상실보다는 이들 산업에서 너무 과도한 물적자본의 투자가 이루어진 반면에 기술과 생산성의 증가는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설에 의할 경우 우리 산업이 비교우위와 수출경쟁력을 잃게 된 큰 요인 중 하나는 정부의 지원을 받은 재벌기업들이 80년대 후반 이후 첨단산업으로 너무 급속히 구조조정을 해나감으로써 기존의 주력 수출산업이었던 의복·섬유·신발 등의 경공업의 수출은 급속히 하락하고 반면에 새로이 진입한 산업에서의 투자성과는 선진국과의 경쟁으로 매우 느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술력의 변화에 초점을 두어 우리 수출산업의 비교우위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과거 30년간 우리 경제는 선진국의 기술을 흡수하고 모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쉽게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고 비교우위를 높여나갈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와 첨단산업으로 뛰어들면서 이제 해외로부터의 수입자본재와 수입기술에 의존하는 과거의 성장방식이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새로운 기술을 창조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지 못함으로써 우리 수출산업의 경쟁력이 하락하였다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 연구가 물적자본의 투자와 기술수준의 변화를 좀더 산업별로 분석하고 우리 수출구조와 교역조건 변화의 변화를 좀더 세밀하게, 예를 들어 선진국과 후진국 시장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 연구가(『정책연구』에 실릴 글임을 감안하여) 분석의 결과로부터 정책적 시사점을 좀더 유도해내고 저자가 주장하고 있는 양질의 인력양성을 통한 요소부존도의 독특성 확보라는 수출경쟁력 회복을 위한 정책제안이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었다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우리 경제의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이제 기술혁신의 능력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으나 우리 경제의 인력의 질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술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인재의 양성과 혁신된 고급기술을 응용할 양질의 노동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다. 결국 기술력의 향상이 없이는 우리 경제의 수출경쟁력의 회복이 어렵다는 점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연구는 우리 경제의 무역구조와 비교우위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흥미있는 가설을 독창적으로 제시하고 이러한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앞으로 우리 경제의 수출경쟁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후속 연구를 기대해 마지않는다.

## 曹 東 徹

(본원 연구위원)

이 논문은 최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선진국과 후발 개도국 사이에서 경쟁력을 상실해온 결과라는 의식이 광범위하게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많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와 같은 추측을 검증하고자 했다는 의미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시도를 한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인적자본 혹은 기술력이 성장의 근본적인 동인이라는 공감대가 학계는 물론 일반에게까지도 널리 인식되고 있는 요즈음, 인적자본의 투입에 따라 산업을 분류하고 그

로부터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는 점도 바람직한 시도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 논문은 방대한 미시자료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아직 널리 인지되지 못하였던 많은 흥미로운 사실들을 제시하고 있다. 산업별 수출비중은 크게 변화하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별 수입비중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점, 이른바 중화학공업의 교역조건이 하락하고 있는 반면 비교우위를 상실해가고 있다고 인식되고 있는 경공업의 교역조건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해왔다는 점 등은 이와 같은 흥미로운 사실들의 예에 해당한다. 또한 비교우위를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해석에 신중을 기함으로써 특정 지표 한 가지만을 검토하고 쉽게 결론을 도출하는 경솔함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자가 자료에 나타난 사실들을 해석함에 있어 너무나 신중을 기한 결과 이 논문을 읽는 독자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자 의도하였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즉, 어떤 의미에서 비현실적일 수 있는 가정들에 근거한 특정 모형에 의존하지 않고자 하였던 세심함이 독자들에게는 논문에서 제시되고 있는 많은 자료들을 어떠한 각도에서 조명해야 할지 다소 혼란을 야기하는 역효과를 내고 있는 듯하다. 오히려 저자가 상정하고 있는 가설 및 그를 위한 가정들을 보다 명시적으로 설명하였다면 논문에 제시된 자료들이 왜 중요한 것이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듯하며, 상정된 가정에 동의하지 않는 독자들은 나름대로 보다 현실적이라고 판단되는 가정하에 동일한 자료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를 짚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남긴다.

초고에 비하여 최종본에는 보다 상술되고 있으나, 저자가 상정하고 있는 ‘비교우위 구축가설’을 구성하는 근본적인 결정요인

(Exogenous or Pre-determined Factors)에 대하여 독자에게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하다. 아울러 이 논문의 논리적 전개과정에서 개별 산업 내의 교역조건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어떠한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보다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듯하다. 즉, 문제의 초점이 한 경제의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이 국제적으로 보다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으로 이행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데에 있다면, 동일 산업 안에서 수입가격에 대한 수출가격의 비율로 계산되는 산업 내의 교역조건 추이를 살펴보는 것보다 산업간의 상대적 국제가격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며, 이와 같은 논리전개가 타당하다면 산업 내의 교역조건추이를 살펴보는 것은 보조적인 역할에 불과하지 않을까 한다.

마지막으로 교역조건 변화와 함께 논의의 주요의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순수출 혹은 무역수지의 변화에 대해서는 환율의 변화에 대한 효과를 고려한 상태에서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엔/달러 환율 등을 포함한 제3국의 환율변화와 상대물가수준을 고려한 이른바 실질실효환율에 크게 영향받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예를 들어 환율이 급속히 절하된 금년의 경우에는 거의 전산업에서 대폭의 무역수지 흑자를 실현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사실은 이 논문에서 취급하고자 하는 비교우위의 구축현상과는 아마 거의 관계없는 사항이 아닐까 한다. 엔화가 급속히 강세를 보여 상대적 가격경쟁력이 강화되면서 대폭의 무역수지흑자가 실현되었던 1986~87년도 비슷한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순수출의 추이를 분석할 때 환율이라는 거시경제변수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전산업의 순수출 추이보다는 각 산업 순수출의 상대적 추이를 비교하는 데에 논의를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

# THE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A Quarterly Journal Published in Korean by th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

Vol. 20, No. 1, 2

1998. I • II

Economic Crisis and Competition Policy in Korea *Kwang-shik Shin*

Comment : *Seung-cheol Lee / Sung-wook Joh*

Education Failure and Reform in Korea *Ju-ho Lee*  
*Cheon-sik Woo*

Comment : *Kun-young Yun / Dae-il Kim*

The Problems of Income Distribution and Related Policy Issues in Korea *Joung-woo Lee*  
*Seong-hyeon Whang*

Comment : *Soon-won Kwon /*  
*Young-sun Koh*

Eroding Distinctiveness of Human Capital and Structural Changes in the Korean Manufacturing *Chin-hee Hahn*

Comment : *Jong-wha Lee / Dong-chul Cho*

---

For subscription to THE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please contact  
Korea Development Institute, P.O. Box 113, Chongnyang, Seoul, Korea  
Fax : (961) 5092. Tel : (958) 4114

## ■ 論評 및 書評 寄稿案内 ■

本誌 編輯委員會는 本誌에 발표된 論文과 本院에서 발간된 單行本 및 각종 報告書에 대한 院內外 專門家들의 論評과 書評의 寄稿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研究主題 및 그 內容과 관련되는 研究方法論 또는 國家政策上의 爭點을 表出시켜 앞으로의 研究課題와 政策方案 設定에 寄與하고, 아울러 實質的이고 建設的인 批判과 討論의 習慣을 造成하자는 趣旨에서 아래와 같은 要領으로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讀者 여러분의 많은 參與를 바랍니다.

### > 아 래 <

1. 원고분량 : 200자 원고지 기준 30장 안팎(PC로 작성한 원고는 길장에 200자 원고지 기준 총분량을 표시할 것)
2. 원고내용 : 論評은 해당 논문에 담긴 誤謬 혹은 爭點을 내용으로 하여 가급적이면 論文이 발표된 후 3개월 이내로, 書評은 해당 보고서의 主要內容 紹介, 寄與度 및 問題點 評價, 그리고 앞으로의 研究課題 提示를 내용으로 하되 원칙적으로 보고서가 발간된 후 6개월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3. 제 출 처 : 우편 또는 인편으로 『KDI 政策研究』編輯委員長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4. 기 타 : 제출된 원고는 本院이 정한 審査節次를 거쳐 呈게 되며, 채택된 원고는 稿料를 드립니다.

# 研究報告書 案內

第71-01卷	企業整理에 대한 意見	金滿堤
第71-02卷	金利引下의 可能性	金滿堤
第71-03卷	農業開發戰略과 米穀需給政策의 評價	金滿堤
第72-01卷	總資源豫算을 위한 成長戰略(1972~73年)	KDI
第72-02卷	새 政策의 選擇을 위한 決斷	金滿堤
第72-03卷	1973年度 豫算規模의 計測	朴宗淇 金完淳
第72-04卷	開館紀念 심포지움 發表論文集	KDI
第72-05卷	韓國經濟 安定化를 위한 提言	下村治
第72-06卷	成長과 安定政策에 관한 研究	KDI
第72-07卷	長短期計劃을 위한 諸模型(잠정)	金榮奉 外
第73-01卷	主要原資材에 대한 國際市場 分析和 價格展望	KDI
第73-02卷	社會保障年金制度를 위한 方案	朴宗淇 金大泳
第73-03卷	韓國經濟의 產業聯關分析	宋丙洛
第73-04卷	主要穀物의 國際需給事情과 價格動向	KDI
第73-05卷	우리나라 教育投資의 經濟的 價値分析	南祐鉉 鄭暢泳
第73-06卷	우리나라 交通計劃과 政策	宋丙洛
第74-01卷	政府 主要農產物 備蓄事業效果分析	文八龍 柳炳瑞
第74-02卷	輸出 100億弗 目標와 歐州市場展望	洪元卓 外
第74-03卷	重化學工業推進을 위한 國家持株會社의 活用方案	司空壹 外
第74-04卷	公企業 任員의 社會的 背景	俞 焄
第75-01卷	豫算制度 改善에 관한 研究	金迪教
第75-02卷	서울市內 生産 및 所得推計(1973)	金大泳
第75-03卷	우리나라 商品輸出의 長期展望(1973~81)	宋熙季 外

第75-04卷	우리나라 教育의 需要形態 및 經濟成長 寄與分析	金榮奉
第75-05卷	우리나라 人口의 推計(1960~2040)	金大泳
第75-06卷	鐵鋼景氣의 測定分析과 豫測模型	金胤亨
第75-07卷	鐵鋼產業의 景氣와 長期需要展望	宋熙季
第75-08卷	서울市內 生産 및 市民分配所得(1974)	金大泳 洪性德
第75-09卷	韓國製造業의 賃金隔差構造	金光錫 外
第75-10卷	韓國 首都圈의 空間經濟分析	宋丙洛
第75-11卷	韓國 에너지産業의 需要分析和 豫測	金胤亨 金炳穆
第75-12卷	우리나라 貿易構造의 推定(1977~86)	洪元卓
第75-13卷	內國稅의 稅目別 稅收豫測方法	朴宗淇
第75-14卷	纖維工業의 成長過程과 生産構造	金榮奉
<b>第76卷</b>		
第76-01卷	우리나라 人口移動의 特徵(1965~70)	金大泳 李孝求
第76-02卷	長期雇傭 및 技術人力計劃	金秀坤
第76-03卷	서울市內 生産 및 市民分配所得(1975)	金大泳 洪性德
<b>第77卷</b>		
第77-01卷	農家所得의 決定要因 分析	姜奉淳 文八龍
第77-02卷	IBRD借款 中規模型 水利事業 評價分析	文八龍 外
<b>第78卷</b>		
第78-01卷	1968~73年 韓國鑛工業 産業資本스톡推計	朱鶴中
第78-02卷	合板工業의 成長	宋熙季 孫炳岩
<b>第79卷</b>		
第79-01卷	우리나라 製造業의 生産性分析(1966~75)	金迪教 孫讚鉉
第79-02卷	輸送部門의 投資事業審查指針	鄭丙壽
第79-03卷	韓國海外移民研究	洪思媛 金思憲
第79-04卷	石油化學工業의 長期展望	金浩卓
第79-05卷	韓國의 育兒費와 出産力	具成烈
第79-06卷	韓國機械工業의 構造와 展望	金迪教 編
第79-07卷	韓國의 칼라TV工業	金榮奉
第79-08卷	韓國經濟의 短期豫測模型	李天杓



第79-09卷	韓國의 輸入構造 및 輸入政策	徐錫泰
第80-01卷	水資源·工業團地造成部門의 投資事業審査分析	林栽煥
第80-02卷	인플레이와 企業成長能力	張榮光
第80-03卷	農業機械化의 政策課題	文八龍
第80-04卷	產業別 投入係數의 變化와 推定	金圭洙
第80-05卷	韓國의 自動車工業	李徹熙
第80-06卷	農業機械化의 投資效果分析	林栽煥
第81-01卷	社會保障制度改善을 위한 研究報告書	朴宗淇 外
第81-02卷	韓國金屬工業의 展望과 政策課題	南宗鉉 編
第81-03卷	自動車工業의 發展方向과 政策	金榮奉
第81-04卷	福祉社會의 人力政策과 職業安定	金秀坤 外
第81-05卷	固體廢棄物 管理現況과 改善方案	鄭文植
第81-06卷	5次計劃을 위한 都市化問題의 研究	宋丙洛
第81-07卷	韓國製造業의 產業集中分析	李奎億 徐鎮教
第81-08卷	農業信用事業의 經濟性分析	林栽煥
第81-09卷	韓國 資本主義經濟體制 發展을 위한 研究	黃秉泰
第81-10卷	韓國의 產業誘因政策과 產業別 保護構造分析	南宗鉉
第81-11卷	對外去來自由화와 韓國經濟	金重雄
第81-12卷	景氣綜合指數作成에 관한 研究報告書	徐相穆 編
第81-13卷	貧困의 實態와 零細民對策	徐相穆 外
第82-01卷	糧政轉換을 위한 食糧安備儲蓄制度	柳炳瑞
第82-02卷	名目 및 實效保護率 構造의 長期的 變化	金光錫 洪性德
第82-03卷	韓國製造業의 產業別 生産構造	金栽元
第82-04卷	勞使關係 事例研究	金秀坤 外
第82-05卷	國家豫算과 政策目標(1982年度)	朴宗淇 編 李奎億
第82-06卷	1960~77年 韓國產業資本스톡推計	朱鶴中 外

第82-07卷	農外所得増大를 위한 綜合對策	柳炳瑞 外
第82-08卷	主要農業政策 改善方案	柳炳瑞 外
第82-09卷	產業政策의 基本課題와 支援施策의 改編方案	楊秀吉
第83-01卷	醫療保險의 政策課題와 發展方向	延河清 外
第83-02卷	世界經濟環境變化와 當面課題	金重雄
第83-03卷	勞使關係 政策課題와 方向	金秀坤 編
第83-04卷	80年代 勞使關係發展을 위한 懇談會 報告書	KDI
第83-05卷	勞使協議制 研究	朴世逸 外
第83-06卷	都給組織의 現況 및 都給去來의 增進方案	金栽元
第83-07卷	國家豫算과 政策目標(1983年度)	崔 洸 編
第83-08卷	短期金融市場의 當面課題와 發展方向	李德勳
第83-09卷	經濟安定化政策과 企業經營의 改善	洪炳裕
第83-10卷	都市行政의 發展的 機能과 改善方向	黃仁政
第84-01卷	韓國稅制의 主要政策課題와 改善方向	崔 洸 編
第84-02卷	退職金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閔載成 外
第84-03卷	國家豫算과 政策目標(1984年度)	金重雄 編 崔 洸
第84-04卷	金融國際化의 當面課題와 政策方向	金重雄 外
第84-05卷	인플레이期待와 經濟安定	李啓植
第84-06卷	市場과 市場構造	李奎億 外
第85-01卷	產業高度化에 따른 農業構造의 改編方向	宋大熙 柳炳瑞
第85-02卷	企業結合과 經濟力集中	李奎億 外
第85-03卷	乘法 季節ARIMA模型의 構造識別方法	呂運邦 孫英淑
第85-04卷	海外先物市場의 活用方案	李 煥 外
第85-05卷	減價償却制度와 資本所得課稅	郭泰元
第85-06卷	第2金融圈의 發展과 業務領域調整	李德勳
第85-07卷	國家豫算과 政策目標(1985年度)	李啓植 編 郭泰元

第85-08卷	特許制度的 經濟的 效果分析	鄭鎮勝
第86-01卷	租稅政策과 稅制發展	郭泰元 編 李啓植
第86-02卷	金融產業發展에 관한 研究, 1985~2000	朴英哲 外
第86-03卷	私學運營의 課題와 改善方案	朴烜求 外
第86-04卷	國家豫算과 政策目標(1986年度)	郭泰元 編 李啓植
第86-05卷	國民年金制度의 基本構想과 經濟社會 波及效果	閔載成 外
第86-06卷	Social Development in Action	黃仁政
第86-07卷	Financial Development Policies and Issues	金重雄 編
第86-08卷	Industrial Development Policies and Issues	李奎億 編
第86-09卷	證券市場의 發達과 機關投資家의 役割	李德勳 張忠植
第87-01卷	商品去來所의 設立에 관한 研究	李 煥 外
第87-02卷	公企業經營評價의 理論的 背景과 技法	宋大熙 外
第87-03卷	우리나라 金融政策運營現況과 改善方案	鄭健溶
第87-04卷	Macroeconomic Policy and Industrial Development Issues	司空壹 編
第87-05卷	Human Resources and Social Development Issues	司空壹 編
第87-06卷	國家豫算과 政策目標(1987年度)	延河清 編 李啓植
第87-07卷	에너지部門의 政策課題와 改善方案	李 煥
第87-08卷	住宅金融의 現況과 發展方向	姜文秀 金重雄
第87-09卷	地方工業의 特性과 育成政策	金鍾基 外
第88-01卷	公企業의 民營化에 관한 研究	姜信逸
第88-02卷	社會保障制度의 政策課題와 發展方向	延河清 外
第88-03卷	金融先物과 欸選市場의 活用方案	李 煥 外
第88-04卷	社會福祉傳達體系의 改善과 專門人力活用方案	徐相穆 外
第88-05卷	國家豫算과 政策目標(1988年度)	郭泰元 編 李啓植
第88-06卷	日本經濟社會의 進化和 韓日貿易	李奎億 外

第88-07卷	輸入自由化의 經濟的 效果와 產業調整政策	金光錫
第89-01卷	리스產業의 發展方案	李 焯 外
第89-02卷	研究開發과 市場構造 및 生産性	金迪教 趙炳澤
第89-03卷	產業技術開發支援政策의 現況과 改善方案	鄭俊石
第89-04卷	國家報勳報償制度의 改編方案	閔載成 金龍夏
第89-05卷	經濟規制와 競爭政策	李奎億 編
第89-06卷	國家豫算과 政策目標(1989年度)	沈相達 編
第89-07卷	金融環境變化와 綜合金融會社의 位相	李啓植
第89-08卷	經濟의 國際化와 中小企業의 產業調整	南相祐 外 朴俊卿
第90-01卷	稅收推計 模型開發에 관한 研究	盧基星 外
第90-02卷	韓國의 適正賃金	張鉉俊 金在源
第90-03卷	地方公企業의 課題와 發展方向	宋大熙
第90-04卷	企業集團과 經濟力集中	李奎億 李在亨
第90-05卷	醫療保險制度의 改善을 위한 政策方案	權純源 外
第90-06卷	證券產業發展을 위한 研究	李永琪 外
第90-07卷	地域發展과 地方財政	李啓植 外
第90-08卷	韓國의 退職金制度와 企業年金制度 導入方案	閔載成 外
第90-09卷	中產層實態分析과 政策課題	延河清 外
第90-10卷	中小企業의 產業調整과 中小企業支援施策의 改善方向	姜文秀 外
第90-11卷	經濟規制와 競爭政策(II)	李奎億 編
第90-12卷	國家豫算과 政策目標(1990年度)	宋大熙 編 權純源
第90-13卷	經濟開放과 巨視經濟運用	朴元巖 外
第90-14卷	國民年金財政의 安定化를 위한 政策課題 및 方向	南相祐 外
第91-01卷	開放化와 下都給體制의 改編	金周勳 趙觀行
第91-02卷	法經濟研究(I)	李奎億 外

第91-03卷	金利自由化的 課題와 政策方向	南相祐 外
第91-04卷	國家豫算과 政策目標(1991年度)	李啓植 編 盧基星
第91-05卷	國民年金基金의 福祉部門 活用方案	閔載成 外
第91-06卷	產業化過程과 經濟制度의 對應	李奎億 編
<hr/>		
第92-01卷	우루과이라운드의 規律分野協商과 產業·貿易政策의 改善方向	南宗鉉 張義泰
第92-02卷	地方自治制 實施에 따른 中央·地方財政機能의 再定立	宋大熙 編 盧基星
第92-03卷	廣告의 產業組織과 規制	李奎億 劉承旻
第92-04卷	舊東獨의 私有化方案 및 失業對策	高日東 外
第92-05卷	構造變化와 雇傭問題	朴俊卿 金政鎬
第92-06卷	製造業의 總要素生產性動向과 그 決定要因	金光錫 外
第92-07卷	國家豫算과 政策目標(1992年度)	宋大熙 編 柳一鎬
第92-08卷	韓國經濟의 產業貿易模型	李元暎
<hr/>		
第93-01卷	國內銀行의 經營效率性 比較分析	孫承泰
第93-02卷	產業保護와 誘因體系의 歪曲	俞正鎬 外
第93-03卷	國家豫算과 政策目標(1993年度)	宋大熙 編 文亨杓
第93-04卷	韓國의 老齡化 推移와 老人福祉對策	閔載成 外
第93-05卷	低所得層의 生活安定과 自立對策	權純源 外
<hr/>		
第94-01卷	地域金融의 活性化와 새마을금고의 發展	李德勳 外
第94-02卷	產災保險 財政運營方式 開發에 관한 研究	閔載成 外
第94-03卷	美日構造調整協議의 展開와 競爭政策	崔鍾元
第94-04卷	國際化時代의 韓國經濟運營	左承喜
第94-05卷	國家豫算과 政策目標(1994年度)	盧基星 編 柳一鎬
第94-06卷	外國人直接投資와 投資政策	李弘求
第94-07卷	우리나라 自動車產業의 當面課題와 產業組織政策	劉承旻 外
第94-08卷	競爭政策의 國際比較：美國·日本·獨逸	申光湜

第95-01卷	金融自律化에 따른 生命保險產業의 對應方案	羅東敏
第95-02卷	韓·臺·日的 輸入依存構造比較	俞正鎬
第95-03卷	法經濟研究(Ⅱ)	李奎億 外
第95-04卷	國際化時代의 金融制度	崔範樹 李炯周
第95-05卷	北韓의 外國人投資制度和 對北投資 推進方案	全洪澤 外
第95-06卷	調達市場의 效率化·開放化 方案	南逸聰 外
第95-07卷	國民年金制度의 財政健實化를 위한 構造改善 方案	文亨杓
第95-08卷	韓國教育財政의 現況과 改革方向	尹建永
第96-01卷	OECD加入과 資本自由化	朴元巖
第96-02卷	金融의 效率性提高와 金融規制 緩和	姜文秀 外
第96-03卷	金融自由化와 金融監督	姜文秀
第96-04卷	製造業 總要素生產性的 長期的 變化	洪性德 金政鎬
第96-05卷	北韓의 經濟特區	朴貞東
第96-06卷	金融의 汎世界化와 證券產業의 構造改編	李德勳 崔範樹
第96-07卷	南北韓 經濟統合時의 經濟·社會 安定化 對策	朴進
第96-08卷	中小企業의 構造調整과 知識集約化	金周勳
第96-09卷	韓國 物價變動構造의 分析和 政策對應	朴佑奎 外
第96-10卷	雇傭對策과 人的資源開發	李周浩
第96-11卷	地域利己主義의 經濟的 理解와 效率的 葛藤調整 方案	金在亨
第96-12卷	經濟世界化時代의 巨視經濟運營	左承喜 編
第96-13卷	與信專門金融產業의 特性和 發展方案	李德勳 外
第96-14卷	中小·벤처企業의 發展과 場外市場의 活性化	崔範樹 李基煥
第96-15卷	中央·地方政府間 關係 및 財源調整	李啓植 外
第96-16卷	경제체제 전환기의 노동정책	조동호
第96-17卷	地方化時代의 政策課題와 制度改善方向	盧基星 編

1997

- |         |                              |            |
|---------|------------------------------|------------|
| 第97-01卷 | 社會間接資本施設에 대한 民資誘致制度의<br>改善方向 | 盧基星<br>鄭源浩 |
| 第97-02卷 | 產業構造의 長期變化와 中小企業의 發展方向       | 朴俊卿        |
| 第97-03卷 | 海外直接投資의 要因 및 效果分析            | 金承填        |
| 第97-04卷 | WTO時代의 新通商議題                 | 申光湜 編      |

1998

- |         |                       |       |
|---------|-----------------------|-------|
| 第98-01卷 | 研究開發의 世界化·地域化와 技術革新政策 | 朴俊卿   |
| 第98-02卷 | 轉換期의 對北政策과 南北經協       | 朴進外   |
| 第98-03卷 | 우리나라 金融產業의 發展構圖       | 李德勳 外 |
| 第98-04卷 | 수도권 정책의 평가와 기본방향      | 노기성 외 |
| 第98-05卷 | 社會保險과 民營保險의 效率的 連繫方案  | 李德勳 外 |

## 新刊案内

Accounting for Rapid Economic Growth in Korea, 1963-1995

반양장/16切判/200쪽/정가 9,000원 / 김광석·홍성덕 지

産業構造의 長期變化와 中小企業의 發展方向

半洋裝/18切判/230쪽/定價 8,000원 / 朴 竣 卿 著

남북한 경제통합의 새로운 접근방법

반양장/18절판/456쪽/정가 15,000원 / 고 일 동 편

經濟危機 克服을 위한 財政改革

半洋裝/18切判/550쪽/定價 18,000원 / 李啓植·黃晟鉉 編

WTO時代의 新通商議題

半洋裝/18切判/260쪽/定價 12,000원 / 申 光 湜 外

農業改革

半洋裝/18切判/272쪽/定價 12,000원 / 薛 光 彥 著

研究開發의 世界化·地域化와 技術革新政策

半洋裝/18切判/204쪽/定價 8,000원 / 朴 竣 卿 著

轉換期的 對北政策과 南北經協

半洋裝/18切判/222쪽/定價 9,000원 / 朴 進 外

1997년 韓國經濟의 主要懸案과 政策對應

半洋裝/16切判/176쪽/定價 6,000원

우리나라 金融産業의 發展構圖

半洋裝/18切判/432쪽/定價 19,000원 / 李 德 勳 外

社會保險과 民營保險의 效率의 連繫方案

半洋裝/18切判/190쪽/定價 8,000원 / 李 德 勳 外



## ■ KDI 圖書會員制 案內 ■

### ■ 會員에 대한 特典

- 會員加入期間(1년)중 本 研究院이 발간하는 모든 刊行物을 우송해 드립니다. (단, 自體資料 및 配布制限資料는 제외)

### ■ 會 費 : 개인회원 : 10만원/기관회원 : 15만원

### ■ 加入方法 :

- 직접 本院 發刊資料相談室에 회비를 납입하거나,
- 가까운 우체국의 本院 우편대체계좌 (계좌번호 : 010983-31-0514919)에 납입하면 됨.

### ■ 問議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7의 41 우편번호 : 130-012  
KDI 발간자료상담실(Tel. 958/4326~8)

### KDI 圖書 販賣處

- |                      |               |
|----------------------|---------------|
| • 서울 : 교보문고(정부간행물코너) | Tel. 397-3628 |
| 중로서적(3층 사회관)         | Tel. 733-2331 |
| 영풍문고(정부간행물코너)        | Tel. 399-5632 |
| • 부산 : 영광도서(정부간행물코너) | Tel. 816-9500 |
| • 대구 : 학원서림(1층 2매장)  | Tel. 425-0050 |